

의과대학 공간부족해 불편

효율적인 공간활용 조정 이뤄져야

학교측 “2호관 완공돼야 해결”

의과대 학생들이 의과대 1호관 포화상태로 심각한 공간문제를 겪고 있다.

의과대학 1호관 건물은 의학과와 간호학과를 비롯해 의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이 다 같이 사용하고 있다. 이로 인해 강의실과 실습실이 부족해 다른 대학건물을 사용하고 있다. 의과대 학생들이 현재 수업을 받고 있는 건물은 의과대학 1호관과 해양대학 2호관, 공과대학 3호관, 공동실습관이다.

더욱이 간호학과와 의과대 2007년 까지 한정돼 있던 정원을 3년 동안 계속 늘려왔기 때문에 공간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간호학과와 정원은 2007년까지는 20에 그쳤으나 2008년 40명, 2009년 50명, 2010년 60명으로 계속해서 늘었다. 의과대

학 1호관에서 간호학과가 사용하고 있는 곳은 3개의 강의실이다.

1학년의 경우는 교양 수업에 대부분이어서 의과대학에 강의실이 따로 필요하지 않지만 전공위주의 수업을 듣는 2,3,4학년에 각각 1개의 강의실만이 있는 실정이다.

실습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 공동실습관도 문제다. 공동실습관은 자연대학 2호관 근처에 위치해 의과대학 1호관과의 거리가 멀다.

간호학과와 의과대 학생은 “실습실과 강의실이 너무 멀리 있어 불편하다”며 “순환버스가 다니고 있지만 15분 간격으로 운영되는 버스시간을 일일이 맞출 수 없다보니 걸어가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렇게 모자란 강의실과 실습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학기부터는

인문대학 1호관 건물을 리모델링해 강의실과 실습실을 배정받을 예정이다. 그러나 인문대학 1호관 건물을 배정받아도 강의실과 학생회·동아리실, 실습실 등이 제각기 떨어져 있어 원활한 수업과 과활동이 이뤄지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강여정(간호학과 3)의과대학 공동위원장은 “강의실과 학생회·동아리실, 실습실 등이 멀리 떨어져 있어 수업이나 학과 활동이 크게 불편하다”면서 “의과대학 주변으로 공간이 배정돼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획평가과의 한 관계자는 “의과대학의 불편한 상황을 알고 있지만 주변 건물들이 이미 다 차있는 상황”이라며 “의과대학 공간문제를 해결하려면 최근 제주대병원 인근에 착공한 의과대학 2호관 건물이 완공돼야 한다”고 말했다.

강보배 기자



지난 5일 한라수목원에서 열린 환경의 날 기념행사에 의류학과 학생들이 현수막과 비닐 등을 이용해 만든 옷들로 패션쇼를 하고 있다.

지방선거개입 기자회견 논란

정현철 “의견수렴 못해 사과드린다”

총학생회장이 지방선거 기간 중 선거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가져 논란이다.

지난 28일 정현철 총학생회장은 제주한라대학, 제주산업정보대학, 탐라대학 총학생회장들과 함께 도의회 도민의방에서 지방선거에 대한 공동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기자회견은 한 후보를 지지하는 의견이 아닌, 한 후보와 지지자들에게 대한 비방 내용이라 사실상 낙선 운동이라는 평을 받고 있다.

총학생회장단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돈 선거를 시도한 현명관 후보가 후보직을 박탈당했다면 당연히 깊이 반성하고 불출마 하는 것이 순리”라고 말했다.

또 “제주대학교 38분의 교수님들은 반칙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모르시는지 현 후보를 지지했다”며 “선거법상 가장 무거운 반칙을 감행한 후보에게 제주 경제를 살릴 책임자로서 지지 한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정현철 총학생회장은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공식적인 의사수렴

과정을 거치지 않은 이유에 대한 질문에 “시일이 시급했기 때문”이라며 “학생들 모두가 이런 문제의식에 동의해 줄 것이라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러한 총학생회장의 기자회견이 학생을 대표하는 입장을 보여주지 못해 의사수렴을 거쳐야 한다는 지적은 끊이지 않고 있다. 공과대의 한 학생은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기자회견을 한 것을 알고 의아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최소 학내게시판에서라도 의견을 수렴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총학생회는 대학 게시판을 통해 기자회견이 중앙운영위의 사전 협의없이 진행된 것을 알렸다. 정현철 총학생회장은 대자보에서 “중앙운영위원회와 일반교직원 학생들의 의견을 먼저 수렴하여야 했으나 그러지 못한 점 진심으로 사과 드린다”며 “앞으로 일반교직원과 함께할 수 있는 총학생회를 만들어가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중건 기자

제주대병원 응급병동 문열어

전체 506병상... 전국 규모로 발돋움



제주대병원(원장 김상림)이 지난 8일 응급병동 개소식을 가졌다.

이번 응급병동이 구축됨에 따라 1층 응급의료센터, 영상의학과, 3

층 중앙수술부으로 연결돼 환자들이 신속하고 쾌적한 공간에서 편안하게 입원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31병상을 더 확충함에 따라 제주대병원은 총 506병상을 가동하게 된다.

현재 병상은 일반병상 448병상, 집중치료실 29병상, 신생아실 6병상, 폐쇄병동(정신과병동) 23병상 등이며, 가동률은 90%대를 유지하고 있다.

제주대병원은 병원 이전 후 전문센터 개소와 최첨단 의료장비 도입, 우수 의료진 총원 등 진료의 질을 높이기 위한 활동을 끊임없이 진행해 왔다.

강보배 기자

‘환경의 날’ 기념행사 다채

제15회 환경의 날을 맞아 다양한 기념행사가 지난 4~5일 한라수목원과 한라터에서 열렸다.

환경공학과(학과장 조은일)는 지난 4일 한라터에서 학생들에게 종이로 만든 펜을 나눠주고, 환경의 날 포어를 공모하는 등 학생들에게 환경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행사를 진행했다. 또 5일에는 한라수목원에서 열린 기념행사 진행을 도왔다.

의류학과(학과장 장현주)는 5일 한라수목원에서 ‘재활용 패션쇼’를 가졌다. 재활용 패션쇼에서 사용된 옷들은 버려진 옷들과 리폼하거나

총학생회나 학과에서 사용한 현수막, 달력, 비닐, 잡지 등 다양한 폐품들을 재활용해 만들었다.

최군한(의류 4)씨는 “이번 패션쇼는 폐품도 잘만 활용하면 좋은 아이디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에 진행됐다”며 “패션쇼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재활용을 생활화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현범석(환경공학 4)회장은 “많은 학생들이 아직 환경의 날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다”며 “이번 행사를 통해 많은 학생들이 환경의 중요성을 깨달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강보배 기자

한국남부발전과 풍력발전 협약 체결

제주대와 한국남부발전(주)는 지난 3일 본관 2층 회의실에서 풍력발전분야 기술교류 및 인재양성 상호협력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은 ‘저탄소 녹색성장’과 Carbon Free Island JEJU 구현을 목적으로 이뤄졌다.

이번 협약으로 제주대와 남부발전은 ▲풍력발전 전문인력 양성 교육 지원 ▲기술 및 정보 교류 ▲내 육·해상 풍력발전단지 건설사업 추진 등을 협력해 나간다.

한편, 남전은 현재 제주도 환경면에 9기(21MW), 성산읍에 6기(12MW)의 풍력발전단지를 운영하고 있다.

제주대는 지난해 3월 지식경제부가 공모한 ‘09년도 에너지인력양성

사업 신규 제안 과제’에서 풍력특성화대학원 신규 사업에 선정, 5년간 총 40억 원의 지원을 받고 있다. 또 올해부터 일반대학원에 ‘풍력특성화협동과정’, 산업대학원에 ‘풍력공학과’를 신설해 육상·해상 풍력발전시스템분야 고급인력을 육성하고 있다.

사 령

박현 (철학 1)
이수진(사회학 1)
양동규(통신공학 1)
5월 10일 자로 수습기자에 임명함

Faculty recruitment

글로벌 시대의 뉴 리더! 혁신하는 명품 대학!

제주대학교에서 미래를 함께할 유능한 교수님을 초빙합니다.

| 지원서 접수기간 | 2010. 6. 11(금) ~ 6. 16(수)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 접수처 | 제주대학교 교무처 교수지원과

| 문의 | 교수지원과 ☎(064)754-2021~2, Fax(064)755-6204

※ 자세한 내용은 제주대학교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www.jeju.ac.kr

제주대학교
JEJU NATIONAL UNIVERSITY

공연예술분과 동아리 “연습공간 부족해요”

공연일 다가오면 로비·복도에서 연습해 소음 공해

공연예술분과 동아리들이 연습공간 부족으로 고충을 겪고 있다.

현재 중앙동아리 소속의 공연예술분과 동아리는 모두 9개다. 이들 동아리들은 악기연주, 밴드공연, 풍물패, 합창, 미술공연 등 다양한 장르의 활동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동아리 회원들이 연습할 공간은 동아리방 이외에는 사실상 제대로 지정돼 있지 못하다. 학생회관 내 세미나와 발표, 공연 등을 위해 빌릴 수 있는 시청각실 또한 이용자가 많아 예약을 하지 않으면 쉽게 사용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특히 공연준비 시기에는 연습량이 많아져 학생회관 전체에서 연습공간 태부족 현상이 나타난다. 기타 동아리 회원들은 기타와 발판, 의자를 연습공간을 찾는다. 공연일이 막바지에 이르게 되면 회원들은 학생회관 3, 4층 로비와 복도에서까지 자리를 잡고 연습을 할 수밖에 없다. 또 노래를 부르거나 밴드연주를 하는 동아리들은 그 소음 때문에 동아리방에서 국한된 채 연습을 하고 있다. 그러나 제대로 방음

시설이 되지 않은 곳에서 음악활동을 할 경우, 외부보다 연습자 자신이 받는 소음 피해가 더 커, 귀에 안 좋은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지적도 있다.

뿐만 아니라, 공연예술분과 동아리 회원들의 연습실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아 타 동아리가 불편을 겪는 경우도 있다. 학생회관 4층에 위치한 한 동아리 회원은 “공연동아리들이 공간이 없어 복도와 로비에서 연습을 하다보니, 공부를 하거나 조용한 동아리 활동을 할 때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며 “연습공간이 없어서 이런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기에, 불편해도 감수하고 있다”고 말했다.

동아리연합회에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지난해부터 공연연습을 위한 방음시설을 갖춘 공간 마련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정승용 동아리 회장은 “이러한 공연예술분과 동아리들의 연습공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동아리연합회가 학생회관 지하 구 갈대연합 공간에 방음벽 등이 설치된 연습공간을 만



학생회관 내 음악예술분과 동아리 회원들이 마땅한 연습공간이 없어 로비 한 구석에서 기타 연습을 하고 있다.

들 예정이었지만, 학생복지과의 예산문제로 이제껏 시행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학생복지과 관계자는 “학생회관 지하에 방음시설과 음악활동을 위한 작업이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종건 기자

물산업센터 장수팀·상선약수팀 우수논문상 수상

막걸리 홍보 콘텐츠, 가능성 주류 아이디어로

제주물산업인재양성센터의 예뮈워터팀 중 장수팀과 상선약수팀이 지난달 28일부터 2일간 열린 한국산학기술학회 춘계학술발표대회에서 우수논문상을 수상했다.

장수팀은 진승훈(컴퓨터교육 3), 고승현(컴퓨터교육 3), 김희리(컴퓨터교육 3), 김형철(컴퓨터교육 대학원 석사과정), 이혜인(식품생명공학 2), 현택화(식품생명공학 2), 김윤선(경제 2), 오종민(경제 4)씨이다.

이들은 ‘감태를 이용한 기능성 막걸리 홍보 콘텐츠 설계’를 주제로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이들이 개발한 막걸리는 기존의 곡주, 혼합 막걸리와는 달리 제주 자생식물인 감태를 사용한 것이다. 감태는 콜라겐 파괴를 억제해 노화 방지와

피부미용에 좋다. 이들은 이 막걸리를 소개하는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소비자가 직접 막걸리를 제조하고 동영상을 올릴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했다.

상선약수팀이 발표한 논문은 임세홍(컴퓨터교육 4), 박충훈(컴퓨터교육 2), 김현석(컴퓨터교육 1), 고영민(컴퓨터교육 대학원 석사과정)씨가 참여했다.

이들은 ‘기능성 주류의 소비기반을 고려한 쇼핑몰 이벤트 생성 알고리즘 연구’를 주제로 논문을 준비했다. 기능성 주류는 일반 주류와 달리 유통기한이 있기 때문에 판매자는 이를 고려해 판매해야 한다. 이들은 이러한 점에 착안해 인터넷 쇼핑몰에서 유통기한이 다 돼 가는 제품에 자동으로 할인이나

1+1이벤트가 적용되도록 시스템을 마련했다. 이는 판매자가 품목마다 일일이 재고를 확인해서 이벤트를 적용시켜야 하는 부담을 덜어준다. 또한 유통기한을 지나쳐서 폐기하는 제품의 손실을 줄일 수 있다.

이번 수상에 대해 장수팀 진승훈씨는 “다른 팀에 비해 팀원이 많아서 의견을 조율하는 데 힘들었지만 모두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준 덕분에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었던 것 같다”며 “부족한 점이 많은데도 우수논문상을 받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한편, 2010년도 한국산학기술학회 춘계학술발표대회는 ‘미래 기초 바이오 육성을 위한 산학협력 기술’이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고용희 기자

“일상생활 속 과학원리를 배워보세요”

생물·물리·화학·제주과학축전서 프로그램 운영

생물학과, 물리학과, 화학과 학생들이 오는 11일부터 13일까지 한라체육관에서 열리는 제주과학축전에 참가한다.

이번 축전은 초·중·고·대학생과 제주도민을 대상으로 과학에 대한 흥미와 호기심을 유발하고, 도민에게 필요한 과학적 지식을 키워주기 위해 마련됐다.

생물학과는 참가자의 혈액형을 판별 할 수 있는 혈액판정 및 모형 을 가지고 인체의 모양을 만들어

보는 프로그램 등을 진행한다. 화학과에서는 화학 반응을 이용해서 바나나우유를 제조하는 실험 등을 할 예정이다.

또 물리학과 학생들은 태양열을 가지고 전기를 만드는 프로그램 등을 운영한다.

이번 축전에 참가하게 된 화학과 부준오 회장은 “과학축전은 다양한 실험을 통해 일상생활 속에 숨어있는 과학 원리를 알 수 있는 기회”라며 “학생과 도민이 관심을 가지

고 많이 참여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생물학과 임종현 회장은 “이번 축전으로 각 학과의 특성을 살린 프로그램을 진행해 과를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과학축전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제주청소년과학탐구연구회 주최로 열린다.

이정우 수습기자

제주대 뉴스 클리핑

자연대·대기고 교류협정 체결

자연과학대학(학장 김두철)과 대기고등학교(교장 김한중)가 과학교육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교류협정을 지난 1일 맺었다.

이번 협약은 대기고의 자연과학계열 학생들의 교육역량을 강화하고, 양교의 주기적 교류와 대학 홍보를 위해 맺어졌다. 이로써 대기고등학교 학생들은 제주대의 실험·실습 환경을 이용

할 수 있으며, 대학교수의 특별강연과 대학 부어를 통한 입시정보도 얻는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제주대 자연대 학생 가운데 교직과정이수자들은 대기고에서 교생실습 기회를 갖게 된다.

이와함께 대기고 교사들의 전문성 신장, 학생들의 창의성 개발과 학습역량 강화 등의 사항이 포함돼 있다.

양길현 교수, 「버마…」우수도서 선정

양길현(윤리교육) 교수가 저술한 「버마 그리고 미얀마 : 내원과 아웅산수지」가 대한민국학술원 사회과학분야 우수도서로 선정됐다.

대한민국학술원은 매년 기초학문분야의 연구와 저술활동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우수도서를 선정해 이를 대학, 도서관, 공공도서관에 보급하고 있다.

이 책은 지난 1988년부터 2008년까지 20년 동안 버마·미얀마라는 나라에서 벌어지고



있었던 정치에 대해 쓴 논문들을 모아 2009년의 시점에서 수 정보화하면서 편집한 것이다.

김태일 총무과장, 시집 출간

총무과장 김태일 시인이 첫 시집 「그녀를 떠나야 그녀를 보았다」를 펴냈다.

이 시집에는 총 70편의 시가 수록됐으며, ▲소나기 소나타 ▲그녀를 떠나야 그녀를 보았다 ▲어디선가 부르는 소리 ▲백지에 피는 꽃 등 4부로 구성돼 담겨 있다.

이 시집은 제주 사람들과 자연 속에서 발견하게 되는 극적인 삶의 원형과 자아의 실존적 차원을 소재로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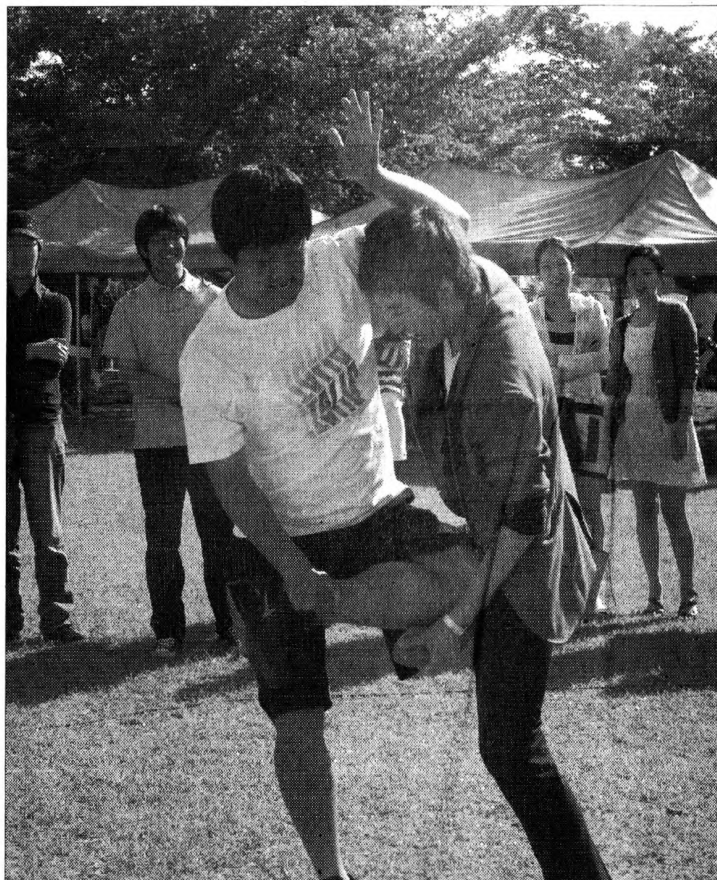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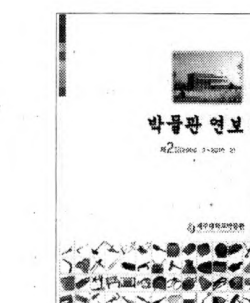


김 시인은 2005년부터 한국문인협회, 제주문인협회, 글밭 제주동인회 등에서 활발하게 작품을 발표하고 있다.

박물관연보 제2집 발간

박물관(관장 김동진)이 박물관 연보 제2집(2000.3-2010.2)을 발간했다.

이번 연보는 2000-2009년까지 박물관의 활동 내용이 정리돼 있다. 특히 2008년과 2009년의 박물관이 진행한 다양한 사업과 유물 기증 등 박물관 2년의 성과가 담겨있다.



‘내 한손은 답벼슬’ 지난달 26일 아라대동체의 한 이벤트 자리에서 한 손은 답벼슬 모양으로 한 채 두 남학생이 답벼슬을 하고 있다.

“장애인의 어려움 실감했어요”

장애인인권위 주최 시각장애·휠체어 체험 실시

‘장애체험행사’가 장애인인권대책위원회 주최로 대동제기간인 지난달 25일부터 2일간 잔디광장 일원에서 열렸다.

이번 행사에서는 안내로 눈을 가리는 시각장애인체험을 비롯해 휠체어타기 등 다양한 체험행사가 마련됐다. 행사에는 총 120명이 참여했다. 행사에 참여한 학생들은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계기를 갖게 됐다고 한다.

이승연(법학부 4)씨는 “휠체어

를 탔는데 팔이 너무 아프고 방향 잡기도 힘들었다”며 “앞으로 장애학생을 만나면 꼭 도움을 줘야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백승관(사학 2) 장애인인권대책위원장은 “이번 행사는 학생들이 직접 장애체험을 해보고 장애학생과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했다”며 “일반학생과 장애학생이 피부로 가까워질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자원봉사 지도자양성 수강생 모집

제주시자원봉사센터에서 ‘대학생 자원봉사 지도자 양성 워크숍’ 참여자를 오는 18일까지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기후변화’에 따른 시민의식 함양에 대한 특강을 비롯해 장애체험 실습, 제주특별자치도 소방교육대의 심폐소생술·응급처치 교육 등이 마련된다.

참가비는 무료이며 참여자는 이틀간 단체 합숙하게 된다.

이와 함께 봉사활동 16시간 확인서도 발급된다.

참여 신청은 제주시자원봉사센터로 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 오종현(758-1727, 728-3949)씨에게 문의할 수 있다.

(주)도암엔지니어링과 상호협력 및 장학금 협약

전기에너지분야 청년일자리 창출 기대

제주대와 (주)도암엔지니어링(대표 이사 오관준)은 지난 4일 총장실에서 전기에너지분야 기술개발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상호협력 및 장학금지원 협약을 체결했다.

전기에너지연구센터와 도암엔지니어링은 이번 협약을 통해 전기에너지 분야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풍력발전, 태양광발전, 스마트그리드, 전력IT 등 전기에너지분야 신기술 개발에 상호협력하기로 했다.

이에 도암엔지니어링은 전기공학과에 매년 1200만원의 장학금을 기탁해 아시아권 유학생과 내국인 학생의 학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제주대는 에너지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아시아권의 우수한 유학생 유치와 이들 유학생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에 최선을 다할 것임을 약속했다.



허창진 총장과 오관준 (주)도암엔지니어링대표가 지난 4일협약식을 가졌다.

속했다. 한편 제주대와 도암엔지니어링은 제주도 구좌읍에서 진행 중인 스마

트그리드 실증사업에 함께 참여하고 있다.

강보배 기자

11회 전도 중·고등학생 통일퀴즈대회

윤리교육과 공동주최… 오현고, 효돈중 통일부장관상 수상

‘제11회 전도 중·고등학생 통일퀴즈대회’가 중·고등학생 288명이 참여한 가운데 지난 5일 제주제일고등학교 체육관에서 열렸다.

통일퀴즈대회는 매년 학생들에게 통일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북한을 좀더 이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주기 위해 개최된다.

윤리교육과(학과장 양길현)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연구회, 통일교육위원회제주특별자치도협의회가

공동주최한 이번 대회에는 퀴즈대회뿐만 아니라 통일 UCC 우수작상영과 통일 포스터 우수작 전시도 같이 실시됐다.

퀴즈대회는 2인 1조를 이뤄 골든벨 형식으로 진행됐으며 결승에서는 부자를 이용해 팀별로 퀴즈를 맞췄다.

이번 대회에서는 중등부 효돈중학교 백두팀(양강석, 현정관), 고등부 오현고등학교 훈남팀(김범수,

고재권)이 대상(통일부장관상)을 차지했다. 이 외에도 중등부 대상 2팀 금상 3팀 은상 2팀 동상 5팀이 수상했다. 고등부에서는 대상 2팀 금상 3팀 은상 2팀 동상 3팀이 상을 받았다.

오현고등학교 훈남팀(김범수, 고재권)은 “노력에 비해 좋은 성과를 거둔 것 같아 기쁘다”며 “북한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뜻 깊은 시간이 됐다”고 우승소감을 밝혔다.

로버트 G.서터박사 '21C 미-중 관계' 특강

“중국, 천안암 사건에 방관만 하기는 어려울 것”

‘21C 미-중 관계’에 대해 로버트 G. 서터박사(미대사관)가 지난 25일 국제교류회관 대회의실에서 특강을 열었다. 로버트 박사는 특강을 통해 현재의 미-중 관계를 비롯해 중국이 급부상하는 현황, 미국과 각 아시아 국가들의 관계 등 국제 이슈들을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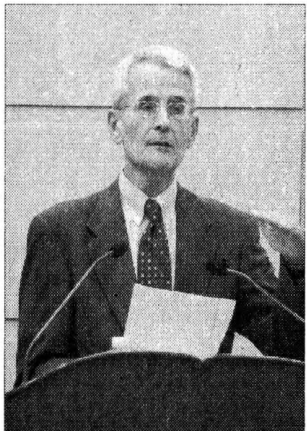
특히 로버트 박사는 아시아 지역에서 중국이 급부상하고 미국이 쇠퇴한다는 견해에 대해 다른 의견을 내놓았다.

로버트 박사는 “과연 미국처럼 중국도 아시아에서 안보를 위해 많은 위험요소와 비용을 감수할 수 있겠는가?”라고 질문을 던지며 중국이 아시아 지역에서 리더가 될 수 없는 이유와 미국이 아시아에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까닭을

설명했다.

그는 “중국이 원원 정책을 펴며 다자관계 등에서 꼭 이익을 취하려 한다”며 “자국의 이익만을 고집하는 나라는 세계의 지도자가 될 자격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 중국이 해외원조를 받고 있는 상황에 대해 “중국이 아시아를 리드하고 미국을 능가한다면 이런 원조는 받고 있지 않을 것”이라며 우회적으로 중국에 일침을 놓았다.

한편 질의응답 시간에는 많은 참가자들이 궁금증을 물어보는 등 열띤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강아령(정치외교 3) 학생은 천안암 사건 후 힐러리 클린턴의 중국 방문이 한반도 정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물었다. 이에 대해 로버트 박사는 “미국이 중국을 압박하는 것



로버트 G. 서터박사(미대사관)

을 의미한다”며 “중국이 방관하는 태도로 일관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답했다.

정승우 수습기자

‘제주의 복식전’

박물관

박물관(관장 김동진 사학과 교수)이 지난 24일부터 8월31일까지 기획전시실에서 ‘제주의 복식전’을 마련한다.

개교 58주년을 기념해 열린 이번 전시회는 ‘삶과 죽음’을 주제로 제주 사람들이 태어나서 죽음을 맞이하는 과정에 이르기까지 입었던 옷들을 선보인다. 박물관은 이번 전시회를 통해 제주만이 지니는 독특한 복식 문화와 그 속에서 당시 사람들의 생활 의식을 엿볼 수 있는 기회의 장을 제공한다. 전시회는 출생과 혼례, 노동, 죽음 이상의 4가지 테마로 구성된다. 전시물은 제주 전통의 베넛조리인 북뽕젓웃과 아기구덕, 여성혼례복인 ‘원삼’과 남성혼례복인 ‘단령’, 노동복인 갈옷, 물소중이, 상례복인 ‘최복’과 ‘상’ 등이다.

또 관람객들이 직접 참여해 제주 전통 복식을 직접 착용해 볼 수 있는 ‘우장 입어보기’ ‘해녀가 되어 보세요’ 등의 체험장도 마련됐다.

제3회 모의유엔대회

정치외교학과

정치외교학과 학생회가 제3회 도내모의유엔 대회 참가자를 모집한다.

이번 대회는 도내 대학생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참가방법은 2인 1개팀으로 구성 후 공식홈페이지(club.cyworld.com/3ndMUNjeju)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접수기간은 8월 1일부터 31일까지이며, 참가비는 개인당 2만원이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정치외교학과 사무국(010-5218-6418)으로 연락하면 된다.

제3회 도내모의유엔 대회는 ‘2015년까지 새천년개발계획 달성을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 방안’을 의제로 10월 7일과 8일 이틀에 걸쳐 국제교류회관에서 개최된다.

또, 프로그램 참가자에게는 수료증, 기억에 남도록 직접 제작한 메모리앨범과 CD도 나눠주고 있다.

캠프 참가비는 950,000원(도의 참가자 항공료별도)이고, 신청방법은 영어캠프 홈페이지 camp.jeju.ac.kr을 참고해서 신청하면 된다.

문의처: 제주대학교 외국어교육원 행정실 ☎(064) 754-2291-2

외국어교육원, 초등영어캠프 참가자 모집

오는 30일까지 90명 모집... 다채로운 프로그램 운영

외국어교육원(원장 이기석)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여름방학 초등영어캠프’ 참가자 90명을 오는 30일까지 선착순 모집한다.

캠프는 8월 2일부터 13일까지 모두 11박 12일간의 일정으로 외국어교육원과 BTL학생생활관에서 진행된다. 초등영어캠프는 원어민과 함께 다양한 활동을 통해 영어에 대한 흥미를 유발하고자 실시된다.

이번 영어캠프는 학생들의 수준

에 맞춰 반을 편성해 영어만으로 진행된다.

프로그램에는 반 친구들과 자기 소개를 하며 친해지는 시간인 얼음 깨기, 교실꾸미기, 연극소품 만들기, 다양한 영어표현을 배우고 여러 가지 상황을 체험해 볼 수 있는 situation class 및 English 게임, 제주투어를 통하여 아름다운 제주 풍경을 감상하는 기회를 갖는 현장학습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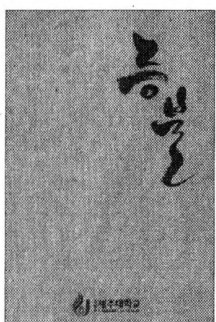
또, 프로그램 참가자에게는 수료증, 기억에 남도록 직접 제작한 메모리앨범과 CD도 나눠주고 있다.

캠프 참가비는 950,000원(도의 참가자 항공료별도)이고, 신청방법은 영어캠프 홈페이지 camp.jeju.ac.kr을 참고해서 신청하면 된다.

문의처: 제주대학교 외국어교육원 행정실 ☎(064) 754-2291-2

경영사업단, 발전기금 안내책자 ‘등불’ 발간

발전기금 용도 및 기부참여자 혜택... 소액기부 방법도 안내



경영사업단이 발전기금 모금 홍보와 참여방법을 소개하기 위해 발전기금 브로셔(안내책자) ‘등불’을 발간했다.

‘등불’에는 발전기금의 용도, 주요 기부자 소개, 기부 참여자 혜택 등이 실려 있다. 특히 기간 거액기부 중심이었던 발전기금 모금이 다수의 소액기부로 확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다양한 참여방법이 제시됐다.

소액발전기금 캠페인으로는 올해부터 진행되는 ‘제주대 사랑 1인 1구좌 갖기’가 있다. 이 캠페인은 제주대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1인당 1개의 구좌를 지정해서 매월 5천원을 발전기금으로 자동이체 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외에도 BC카드는 이용금액의 0.1~0.2%가 발전기금으로 적립되는 ‘제주대사랑카드’와 ‘제주대사랑 OK캐시카드’도 안내돼 있다.

양성국 경영사업단장은 “작은 등불이 모이면 큰 불을 밝힐 수 있듯 제주대를 사랑하는 모든 분들의 힘이 모이면 제주대가 더욱 발전되도록 이끌어갈 수 있을 것”이라며 “작은 금액이라도 교직원이나 동문 등 많은 사람들이 기부에 참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등불’은 도내외 동문을 비롯해 학부모, 해외 동포 등에게 전달된다.

고용희 기자

기말고사로 인해 836호 신문은 7월 7일에 발간됩니다.

박지해·김들 장전초4 제주어말하기 대상

국어문화원 주최로 본선 9개팀 경연

“나 곧은 말 알아들어지루과?”

‘2010 제주어 말하기 대회’가 국어문화원(원장 강영봉 교수)의 주관으로 지난 5일 인문대 2호관 세미나실에서 열렸다.

학생부를 중심으로 진행된 이번 대회는 총 9개팀이 본선에 진출했으며, 본선 참가 모든 학생들에게 수상이 이뤄졌다. 다양한 제주의 신화와 문화에 대한 주제가 발표된 가운데 이번 대회의 대상은 박지해·김들(장전초등학교 4) 학생이 수상했다. ‘우리 제주 조상들은 무슨 거 먹었 살아신고?’의 주제를 발표한 박지해·김들 학생은 제주의 제사음식을 준비하는 과정

을 대화를 나누며 제주어로 소개했다.

금상은 ‘호프씩 알아 감수다’ 주제로 강하람(오현고 2) 학생이 받았다. 강하람 학생의 이야기는 제사장 위 낡은 사진을 보고 할머니께 4.3이야기를 전해 들었던 과정을 담았다.

지도교사상을 수상한 양정금 장전초등학교 교사는 “학교에서 제작년부터 제주어말하기 대회에 참여해 왔다”며 “아이들에게 특별히 제주어를 가르쳐 주기보다, 일주일에 한번씩 제주어 동요를 가르쳐 주며 제주어에 자연스럽게 다가가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심사위원은 김병택, 강



영봉, 김동윤 국어국문학과 교수가 맡았으며, 심사 기준은 제주와 관련한 주제, 적절한 표현 방법, 정확한 발음, 발표시간으로 정해졌다.

박준건 기자

전도 중고생 미술실기대회 열려

황준용·백주연 최우수상 수상

제32회 전도 중·고등학생 미술실기대회가 지난달 29일 제주대학교 교정 및 미술관에서 열렸다.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열린 이번 대회는 미술에 꿈을 가진 학생들의 실력을 알아보고자 열린 대회다. 이번 대회는 중등부(수채화), 고등부(한국화, 서양화, 조

소)로 나뉘어 진행됐다.

수상자는 다음과 같다.

▲중등부(수채화)

△최우수 황준용(함덕중) △우수 송효원(무릉중) 외 6명

△특선 손유진(동여중) 외 13명

△임선 이소정(대정중) 외 32명

▲고등부(한국화)

△우수 이하늘(한림고) ▲특선

우지훈(대기고) 외 9명 ▲임선 이

현지(한림고) 외 7명

▲고등부(서양화)

△우수 백주연(제주여상) 외 12

명 △특선 김세옥(제주여고) 외 27

명 △임선 박민혜(영주고) 외 27명

▲고등부(조소)

△최우수 제진영(제주여고) △우

수 김다솔(중앙고) 외 1명

△특선 김미연(중앙여고) 외 5명

양동규 수습기자



○... 개인정보 신경 좀 썼으면

하영드라마 쪽지주요받기 게시관에서 클릭 한번으로 수강학생들의 이름, 학과, 학년, 전화번호를 모두 알 수 있어 말뼉.

조별과제를 할 때 조원 간 연락망 역할을 톡톡히 하지만 전화 번호가 선거나 상품 홍보에 이용될 소지가 있어 문제. 이에 지난 4일 정보통신원은 전화번호가 써진 부분을 삭제했다고.

정보통신원의 노력에 박수를 보내며 앞으로도 학생들의 정보 안전을 위해 세심한 관심 부탁.

개인정보 보호에 관심을

○... 물을 주시오!

인문대 2호관이 완공 된지 한참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정수기 하나 설치되지 않아 학생들이 물을 찾기 위해 돌아다니다니 일췌.

인문대 대부분의 수업이 이뤄지는 2호관 건물에 정수기 하나 없다는 것은 물을 마시고 싶은 사람은 매점에서 사먹거나 다른 건물 가서 먹으라는 소리밖에 안 되니 학생들에 불만이 증폭.

학생들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하루빨리 인문대 2호관에 정수기 등을 설치해야 한다는 지적

○... 기울어진 한라터 위험

학생회관 앞 운동공간인 한라터 내 농구장과 축구장에 보이지 않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데.

이유인 즉 한라터의 바닥 자체가 기울어져 있어 뛰는 운동을 하는 가운데 조금이라도 불안정하게 착지했다간 다리를 찢지거나, 넘어지는 등의 불상사를 겪게 된다고 불멘소리.

학생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운동공간인 만큼 학교당국과 학생회가 하루 빨리 해결해 주시길 기대.



의학전문대학원, 아토피캠프 열려

아토피질환 정보와 예방전략 소개

‘학부모와 함께하는 아토피과 캠프’가 지난달 29일부터 1박 2일동안 제주취트니스타운에서 아토피 질환 완화와 보호자를 대상으로 열렸다.

의학전문대학원 환경보건센터(센터장 홍성철)와 제주보건소(소장 왕옥보), 서귀포보건소(소장 양원현) 공동주최로 열린 이번 행사에서는 아토피질환에 대한 정보와 아토피 질환의 예방전략 등이 소개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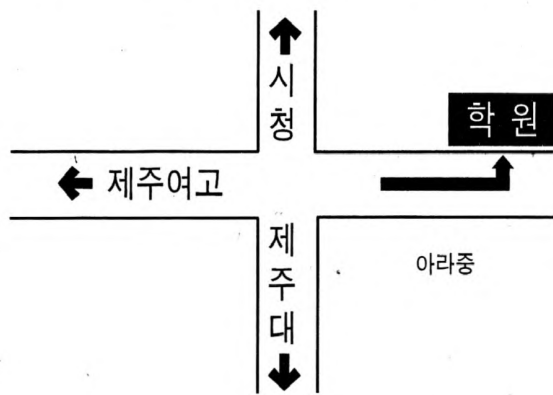
첫째날에는 학부모들을 위해 피부과 전문의인 김재왕(의학과) 교수가 ‘아토피 질환의 이해’를 주제로 강의를 열었다.

박현 수습기자

운전면허

제주대학교 발전 후원 업체 한라자동차 운전 전문 학원

- 매주 운전면허 기능시험 자체 실시
- 셔틀버스 운행: 제주대 ↔ 학원(08:30~17:00)
매시 30분 제주대 정문앞 출발
- 주말교육 가능 ○ 필기시험 교재 배부



제주시 아라2동 1320 (제주여고 입구 동쪽)
전화: 755-9900

제주여고 입구 건너편(다리) ↔
학원 셔틀버스 운행

■ 공모전, 취업으로 가는 빠른 길

“튀는 아이디어 발굴에 숨쉴틈 없어요”

철저한 마무리, 한발 앞선 준비 필요... 비록 떨어져도 즐거워해야

공모전 태풍이 몰아치고 있다. 여름 방학을 맞아 전국 곳곳에서 수백개의 공모전이 쏟아지고 있다. 이와 함께, 공모전에 전국 대학생들의 눈독이 가는 소리도 벌써부터 들려온다.

방학기간 동안 자신의 역량을 한껏 발휘해 볼만한 공모전 어디 없나, 공모전 사이트를 이리저리 둘러보기도 한다. 그런데 막상 생각해 보니 도전하고 싶은 마음만 앞섰지 어떻게 도전해야 할지는 막막한 것이 현실.

이때, 당신에게 조언할 공모전 교수들이 나왔다. 공모전을 먼저 경험하고, 화려한 수상경력도 가지고 있는 선배들이 후배들을 위한 이른바 제주대 공모전 비기(?)를 전하겠다고 한다. 제주대 선배들의 공모전 이야기 한번 들어보자. <편집자 주>

공모전의 정의는 ‘공개 모집한 작품 전시회’라 한다. 처음 공모전은 미술작품이나 문학작품을 현상공모 하던 것에서 시작했지만, 현재에는 체험공모전, 아이디어 공모전, UCC공모전 등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해졌다. 종류만 넓혀진 것은 아니다. 그 의미와 역할도 증대됐다.

과거의 공모전이 단순히 작품 실력을 인정받는 것에 그쳤다면, 이제 공모전은 직접적으로 취업과 연계되는 경우가 많아졌다.

양길(언론홍보 3, 지식경제부 주관 이력서 UCC경진대회 대상 수상)씨는 “공모전을 준비하는 이유 가운데 취업에 인센티브가 되기 위한 것이 주요한 이유 중 하나가 될 수 있다”며 “이를 위해 무분별한 공모전 참여는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 그는 “공모전을 준비하는데, 자신의 실력을 처음 가늠해 보고 테스트 해 볼 수 있는 작은 단위의 공모전부터 시작해, 후에는 자신이 입사하고자 하는 기업이나 언론사 등의 기관이 주최하는 공모전에 최선을 다해 참여해야 한다”고 말한다.

또 양길씨는 공모전 참여에 차근차근 계획을 세울 필요성을 제시한다. 공모전 참여가 취업과 연계돼 큰 시너지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자신의 실력을 명확하게 보여 줄 수 있는 공모전이여야 하며, 취업하고자 하는 곳에서 원하는 기본적인 자신의 사항도 꼭 갖출 것을 권했다. 공모전 수상경력만으로 취업을 바라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공모전은 아이디어 경쟁

공모전 수상자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공모전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아이디어 선정이다. 어떠한 소재에 어떤 아이디어를 접목 시킬 것인가를 처음 결

정하는 과정이 공모전의 전체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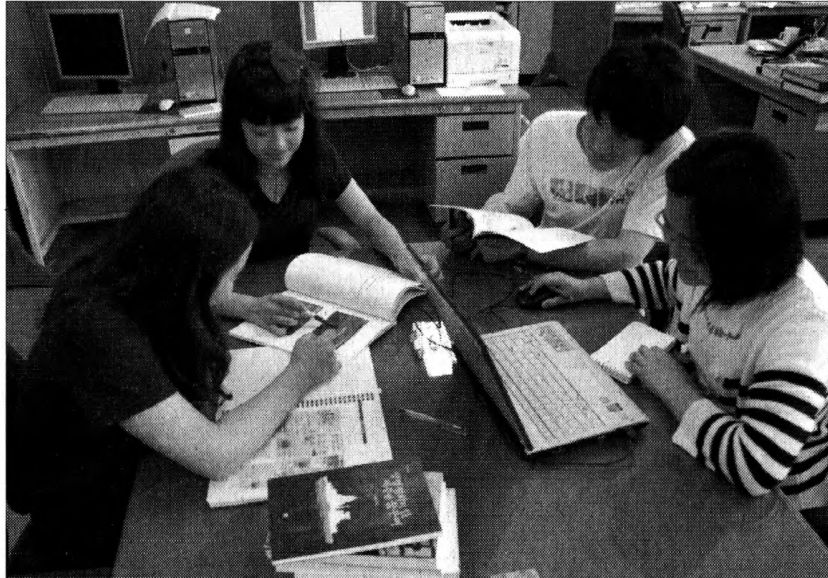
현종석(경영 2, 글로벌마케터 2010 최우수상)씨는 “공모전을 처음 시작할 때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막막하다고, 무작정 과거 참여했던 팀의 기획서를 보고 따라 하기도 하는데, 이는 자신의 팀만의 창의성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낸다. 이렇게 기획서를 보기 시작하면, 그 기획서 양식이 머리에 남아 더 창의적인 기획을 만들어 내기 어렵게 된다”고 말했다.

공모전에는 기업 이름이나, 문화재, 상품과 같은 어떠한 소재가 존재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소재를 접근 할때, 중요한 점은 특별한 주제가 아니라, 특별한 시각과 접근방법이다.

이효형(언론홍보 3,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UCC동영상 콘테스트 대상)씨는 “소소한 주제를 선택하더라도,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비추주는지가 중요하다. 예를 들어 제주문화에 대한 영상을 만들 때를 보자. 일반적으로 제주의 문화를 촬영하고 편집하며 역사를 이야기해 주는 것에 그치는 일반적 형태 보다, 제주의 문화 유적지를 티셔츠 하나하나에 그려 나가며 문화재 티셔츠를 만들어 내는 과정과 같이 스토리텔링을 입히는 영상 이 더 주목을 받는다. 특히 공모전에서 중요한 것은 시상함을 던져버리고, 끝까지 볼 수 있도록 흥미를 끌어야 한다는 것이다”고 말했다.

철저한 준비와 보완 작업 필요

공모전에서 선정되기 위해 자신의 주제와 팀은 무엇인가 특별해야 하고, 가격적이어야 한다. 그렇지만 주의할 점은 이런 과정 속에서도 본 주제를 벗어나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너무 신선한 것에 몰두해 자신이 좋아할만한 공모 주제와



공모전 경험자들은 수상을 목적으로 하기보다 공모전에 참여하면서 얻어가는 과정들이 더욱 값진 것이라 말한다.

작품을 만드는 것도 금물이다.

이경태(경영 3, 마케팅동아리 JIBC회장)씨는 “공모전을 주최한 측이 어떤 주제와 공모 작품을 원하는지 파악해야 한다. 기업이 공모전을 개최한 이유를 통해 제품과 아이디어가 실용가능한지를 따져 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 최종적으로 공모전에서 수상을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의견을 조율하고 계속적으로 보완해 나가며 완성도 높은 작품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전한다.

이경태씨는 “현재 마케팅 동아리에서는 일주일에 한번 씩 마케팅 PPT를 발표하고 서로 피드백 하는 과정을 거친다. 학생들의 날카로운 지적 아래 더욱 완성도 높은 기획서가 마련된다. 또 공모전에 참여하기에 앞서 수상한 선배들을 찾아다니며 공모전 정보를 수시로 확보하는 것도 필요하다. 특히 작품을 공모하기 이전에, 전문 분야의 여러 교수님들께 기획서와 작품의 부족함 점을 지적받아 보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공모전 수상만이 전부는 아니

공모전 경험자들은 공모전 수상보다 참여과정에 더 의미를 뒀다. 한다고 말한다. 수상을 하면 좋지만, 수상을 하지 못해도 공모전을 준비하는 과정만으로 얻을 수 있는 다양한 이점들이 있다고 한다.

김신철(언론홍보 4, 2007 대한민국 대

학생 광고경진대회 파이널 리스트상 수상)씨는 “공모전은 자신의 적성을 알아볼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광고분야의 공모전을 준비한 적이 있었는데, 자신이 생각한 것보다 적성에 맞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아 현재는 영상분야의 관심을 두고 공모전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공모전을 준비하는 과정이 즐거워 한다. 수상도 수상이지만 즐기지 못하면 의미가 없다고 본다. 자신이 즐기지 못하면 좋은 작품이 나올 수 없고, 결국 그 작품을 보는 사람도 즐길 수 없다”고 말했다.

김종오(행정 3, 삼성싱크마스터 전국 대학 홍보대사 1기)씨는 “공모전 참여가 수상이라는 성과만을 위해선 안된다. 성과를 만들어가는 과정의 경험에 더욱 자신의 이익이 될 것이다. 공모전에서 굳이 수상을 하지 않는다 해도 준비 과정에서 팀워크, 기획서 쓰기, 발표, 면접 등의 다양한 과정을 거치며 자신이 성장하게 한다”고 말했다.

안소현(멀티미디어전공 졸, 제이아스 티셔츠 공모전)씨는 “공모전을 준비하며 며칠밤을 밤을 새우며 회의하고, 아이디어를 도출해 내가는 과정은 특히 취업 후에도 잊지 못하고 있는 기억이다. 공모전에서 수상한 점이 물론 뿌듯하기는 했지만, 결과에 연연하기보다 사람들 간의 팀워크를 배워간 점, 자신의 재능을 재밌게 발휘할 수 있다는 기회라고 생각한 점 등, 과정 상의 경험이 더욱 값지다”고 말했다.

박종건 기자

재학생 정치성향 분석

제주대생 중도>진보>보수 성향

선호정치인 박근혜·유시민 순

제주대 학생들은 자신의 정치성향을 무엇이라 생각할까. 또 이명박 정권에 대해 어떤 평가를 내릴까. 이런 물음에 답하기 위해 제주대신문은 지난 3월 <한겨레21>과 함께 제주대학교 재학생 100명을 대상으로 정치성향을 비롯한 정치관련 문항에 대해 설문조사 실시했다.

조사에서 자신의 정치적 성향을 묻는 질문에 학생들은 중도 45명, 진보 31명, 보수 20명으로 응답했다. 진보를 선택한 31명의 학생 중 30명의 학생들은 다소 진보적일, 1명의 학생만이 매우 진보적이라고 답했다. 보수를 선택한 20명의 학생 중 15명의 학생은 다소 보수적일, 5명의 학생은 매우 보수적이라고 답했다. 이렇듯 제주대 학생들은 자신이 성향이 보수거나 진보보다 급진적인 성향보다는 중도적인 성향이 깊게 나타났다.

이러한 중도성향은 <한겨레21>과 함께 설문조사에 참여한 10개 대학 중 가장 높은 결과로 그 뒤인 경북대의 37명보다 8명이 많게 나왔다. 또 자신의 정치적 성향이 보수적이라고 생각하는 학생은 경북대가 27명으로 가장 높았고 연세대가 26명, 서울대가 23명으로 나타났다. 제주대는 20명이었다. 반면 자신의 정치적 성향이 진보적이라고 답한 학생 비율은 중앙대가 54명으로 가장 높았으며 성공회대가 49명, 연세대가 43명으로 나타났다. 제주대는 31명에 그쳤다.

참여 제주대생 정치성향, 대부분

사민주의로 나타나
‘불런델-고스초크 모델’을 통해 정치성향을 판단한 결과 설문조사에 참여한 대부분의 학생이 사민주의적 성향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런델-고스초크 모델’은 기존의 좌파 우파 구분에서는 드러나지 않던 유권자 태도변화나 현실 설명이 가능하도록 보수주의적, 자유지상주의적, 사민주의적(진보, 개혁주의적), 권위주의적(국

가주의적)인 집단으로 구분한 성향을 보여준다. 58명의 학생이 ‘이명박 정권 못한다’고 평가

이명박 정권에 대한 평가를 해달라는 질문에 학생들은 매우 잘하고 있다 1명, 잘하는 편이다 10명, 보통이다 27명, 못하는 편이다 32명, 매우 못하고 있다 26명을 기록했다. 또 대선 당시 지지했다가 국경 2년 만에 지지를 철회했다는 이들이 13명이었다. 제주대생, 정치·사회 관심도 10개 대학 중 7번째

자신의 정치·사회 관심도를 점수(10점 만점)로 매겨달라는 질문에 각 대학 학생들의 평균치는 5점 안팎으로 나타났다. 제주대는 4.96점으로 10개 대학 중 7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제주대보다 낮게 나온 학교들은 서울대 4.81, 경북대 4.48, 서울여대 3.71 순으로 나타났다.

숙명여대가 6.06으로 정치·사회 관심도가 가장 높게 나왔다. 그 뒤를 조선대 5.92, 연세대 5.84가 이었다. 차기 대통령감으로는 박근혜를 가장 많이 뽑아

제주대생이 생각하는 차기 대통령감은 누굴까. 제주대의 경우는 유효응답자 96명의 학생 중 박근혜가 30명, 유시민이 15명으로 박근혜가 유시민을 15명의 차이로 앞서 차기 대통령감으로 나타났다. 그 뒤는 오세훈, 정동영, 정몽준(7명), 김문수(4명), 손학규, 이회창(2명), 노회찬, 심상정(1명)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한겨레21>과 각 대학들이 조사한 결과에서 2010년 한국 대학생이 가장 지지하는 차기 대선주자는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었다. 유효응답자 973명 가운데 209명이 꼽은 결과다.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159명),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61명), 오세훈 서울시장(60명), 이회창 자유신진당 대표(44명), 정동영 민주당 의원(44명) 등이 뒤를 이었다. 강보배 기자

신제품

더욱 더 새로워졌습니다

19.3% / 360ml

자연 미네랄과 바나듐 성분이 풍부

산성화된 체질을 중화시키는 100% 약알칼리성 화산 지하 암반수 함유

장기간 숙성시킨 중류암의 천가

순국 원료를 AFC공법으로 탈취 장기간 숙성

아스파라긴 함유

(주)하라산은 100% 순수한 지하수로 운영되며 수익금의 일부는 제주도민을 위한 지역사회 발전 성금으로 사용됩니다.

www.hallasan.co.kr

30억

(2009년 12월 30일 현재 사회환원금)

향토기업 60년, 제주의 사랑을 담은 1등 소주
하라산소주

●하라산소주 사회환원현황

내역	금액(원)
장학금 및 대학교발전기금	9억 1천 1백 5십 만 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및 불우이웃 돕기	12억 8천 1백 5십 만 원
대한적십자	2천 9백 8십 만 원
심야시운 후원금	3천 3백 6십 만 원
제주도 체육육성기금	1억 3백 9십 5만 원
지역사회 후원금	6억 2천 6십 만 원
수재의연금	4천 8십 만 원

몰이좋아 순한소주

(주)하라산

www.hallasan.co.kr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동포로 396번지 영업부 Tel: (064)796-6674

제주의 복식 문화

‘창의와 실용의 미학’ 그 자체인 제주의 옷

옷이란 오랜 세월 인류와 함께 해 왔다. 아담과 이브의 나뭇가지로부터 최첨단 나노의 기술이 첨가된 우주복까지, 이러한 옷에는 그 지역의 기후나 풍토와 같은 자연 환경과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원료와 기술, 그리고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생활관습과 생각, 정치적 관념 뿐만 아니라 종교적 가치 등이 깃들여 있다.

제주의 옷은 크게 한반도의 영향을 받으면서 제주 고유의 의생활을 창조하면서 발달해 왔다. 제주에서 생활하면서 오랜 세월 경험에서 우러나온 생활 옷이 주류를 이루면서 유아복의 하나인 붓뽕잠옷, 노동복인 갈옷, 잠수부의 옷인 물소중이, 중산간 지역의 목자들의 옷인 우장과 가죽두루마기 등 주로 생업과 관련된 옷들이 보편적이었다.

제주의 의복문화를 집약해 보여주는 옛 기록에는 다음과 같은 글도 있다.

“가죽 띠와 미투리에 철퍼 옷을 입었다.”

“가난한 자들이 추운 겨울철에 도롱이나 망석을 입고도 동사를 면하였는데...”

“목면 및 삼과 모시가 생산되지 않아서 입을 것과 먹을 것이 모자라므로 오직 해산물을 캐어서 생업했으며... 부인은 치마가 없고 다만 삼 새끼로 허리를 동이고 두어자 배로 새끼 앞뒤에 기워서 그 음부를 덮을 뿐...”

김삼헌의 『남사략』(1601)에는 이처럼 철퍼 배옷을 입었다, 도롱이나 망석을 두르고 있다. 목면과 모시가 생산되지 않아서 부인들은 겨우 음부만을 가렸다는 기록을 통하더라도 15세기 제주의 환경은 입을 거리가 그리 풍족치 못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조선시대까지만 하여도 육지와 교역품 중에서 큰 비중을 차지했던 물품 중의 하나가 옷감인 포포로서, 미, 미, 포포, 염염 중에서도 두 번째를 차지하고 있던 사실 만으로도 짐작할 수 있다. 옷감이 귀하다 보니 옷이 한 벌 마련되면 그 옷이 낡아 떨어질 때까지 몇 번이고 꿰매어 입다가 상한 곳이 있으면 아기의 기저귀나 걸레로 이용되고 마침내는 아궁이의 불쏘시개로 썼으므로 그 흔적과 유물이 많이 남아 있지 않은 특성이 있다.

제주도의 기후와 생업조건은 또 다른 의복생활의 패턴을 낳았다. 해안지역은 남방문화를 수용하였는가 하면 중산간 지역은 북방문화의 영향이 강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특징지어 진다. 이러한 상황이다 보니 일반 의복은 노동복과 일상복을 겸하는 기본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게 되었다.



제주대학교 박물관이 ‘제주의 복식전’을 열고 해녀복 물소중이와 물질두루마기를 전시하는 등 제주의 복식문화를 한눈에 볼 수 있다.

제주의 속담에는 노동의 일상이 곧 제주의 삶의이었음을 대변해 주는 말이 있다. “개날 뚫날 골갱이 놓는 날 어서 일하다 뵈자 이팔” 개날, 뚫날 호미 놓는 날 없이 열심히 살았지만 이 모양이라는 제주인이 고단한 일상이 드러나는 대목이다. 그러므로 제주사람들의 삶이란 곧 노동과 닮아 있었다.

대표적인 노동복으로는 갈옷, 물소중이, 목자들의 옷이 있다. 갈옷 대부분 무명이 차지하였으나 1940년경 광복이 들어 오면서는 광복을 더 오래 그리고 실용적으로 쓸 목적으로 옷감에 감물을 들여 사용하였다. 감물의 유래에 대하여서는 일찍이 목축을 하던 제주사람들이 돼지피로 염색을 하였으나 그것이 점차 시간이 흐를수록 감으로 대체되었다는 설이 유력하다. 아마도 제주사람들의 노동 생활에 본바탕의 옷감(하얀색)은 감당기 어려웠을 것이고 그 대체의 소산이 염색이었을 것이다.

갈옷의 과학성과 합리성은 다양한 연구로 입증되고 있다.

제주의 해안지방에는 해녀들의 복장은 물소중이다. 1703년(숙종 29) ‘탐라순력도 耽羅巡歷圖’에 보면 물소중이를 입고 해녀들이 작업하는 모습을 찾을 수 있다. 오늘날 원피스 수영복의 일종으로 하얀색 수영복에 하얀색 머리 수건을 한 해녀들의 바다에서 작업하는 모습을 담고 있는 소중한 그림책이다. 이 물소중이는 한쪽 면을 완전히 띄워 매듭단추로 그 크기를 조절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재단과

마름에서도 경제성과 효율성이 보이는 제주 여성들의 삶림살이의 조낭정신의 지혜가 돋보이는 대표적인 의복이다. 여성의 몸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과정 속에서 그 변화가 심하다. 그때마다 다양한 옷을 지어 입을 수가 없었던 제주 여성들은 기발한 아이디어를 이 옷 속에 반영하여 언제라도 크기와 품을 조절할 수 있는 자유로운 옷으로 제주여성의 창의성이 곧 실용성에 그 바탕을 두고 있음을 알게 해 준다.

제주의 중산간 지역은 목축을 주로 하였다. 이 지역에서는 가죽 두루마기를 입었다. 두루마기란 골고루 터진 곳이 없이 막혀있다는 뜻이며 수모피(獸毛皮)로 만든 옷으로 북방문화의 요소가 짙고 주로 방한의 목적으로 착용하였다. 이외에도 목자(소떼우리, 말떼우리)들은 우장을 입었다.

제주의 우장은 또한 그 짜임이 독특한 짚·풀 문화의 정수를 보여주는데 짜임에 있어 조직이 정교할 뿐만 아니라 그 기능이나 아름다움에서도 단연 일품이다. 여름에는 비옷으로, 겨울에는 방한용 외투로, 산이나 들에서는 밭에 이불로도 사용하여 그 용도가 다양하였다.

이렇게 제주의 일상은 노동과 불가분의 관계 속에서 발전되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는 또한 통과례의 날들이 있다. 이 날을 위한 의례복으로는 관복, 혼례복, 상례, 제례복이 있다. 이와 관련된 의복문화는 주로 한반도의 영향을 받았으며 그 형태는 조선시대 복장

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으면서 발전되어왔다.

제주의 옷, 복식문화는 한마디로 제주의 생활환경에 적응해 가면서 제주사람들의 정신이 담겨진 문화유산이다. 여러 가지로 열악했던 삶의 조건은 실용을 위주로 최대한의 효율성을 궁리하게 했고 그것이 하나의 창의성으로 이어져 독특한 의복문화를 발전시킬 수 있었다.

제주의 갈옷은 오늘날 우리의 삶의 전반이 고민하는 친환경적 삶을 대변해 주는 하나의 문화, 자연주의로 대변되면서 제주의 패션문화를 대표하는 선두주자가 되었다. 제주 옛 선인들의 지혜가 그 빛을 발하는 시대가 된 것이다. 앞으로 전 지구적 가치는 지속가능한 자원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것을 실천하는 이들에게 존경을 표하게 될 것이다. 제주의 옷인 물소중이, 갈옷, 도롱이 등은 이런 정신과 가치를 이미 내포하고 있었던 미래 지향적인 의복문화였던 것이다. 제주의 복식문화가 지녔던 복식문화의 의미와 가치를 살려 더한층 실용과 창의를 담아내는 지혜가 필요한 시기이다.

제주의 옷, 복식문화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좋은 전시회가 제주대학교박물관에서 <제주의 복식>이란 주제로 열리고 있다. 어린이들에게서 생활복, 의례복, 모자, 신발류 등 기타 장신구류까지 한 눈에 볼 수 있는 전시회로 제주 사람들의 의생활 전반을 담고 있는 전시이다. 꼭 한번 들러 보길 바란다.

장혜련 사학과 강사

한권의 책

풍부한 미술사적 안목 돋보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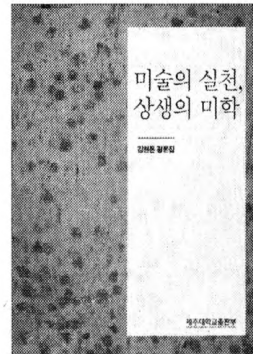
대지(大地)가 피우는 꽃은 아름답고, 미(美)이다. 삶도 꽃을 피우는 데, 그 꽃은 예술이고, 미(美)이다. 대지가 꽃을 키우듯이, 삶은 예술과 미를 잉태하고 자라게 하는 토양이고 모태(母胎)이다.

그렇다고 삶이 미는 아니다. 초목은 대지에 뿌리를 내리고, 대지로부터 줄기를 세우고 난 다음에야 꽃을 피울 수 있다. 미의 창조자도 삶에 뿌리를 내리지만, 삶에 매몰되지는 않는다. 초목의 줄기처럼 대지인 삶으로부터 일어설 때에야 예술가는 미의 꽃을 피울 수 있다. 그 꽃은 대지의 꽃이지만 대지인 것은 아니다. 마찬가지로 회화도 삶의 꽃이라고 할 수 있지만, 회화가 바로 삶은 아니다.

예술가들, 화가들도 삶을 산다. 그러나 잘 살 수가 없다. 삶을 잘 산다는 것은 미가 될 수 없다. 잘 산다는 것은 대지와 삶에 머무르는 것과 같다. 그의 삶이 회화가 되고, 미가 되기 위해서는 초목의 줄기처럼 상승해야 한다. 상승한다는 것은 대지를 떠나야 한다는 것이다. 대지로부터 빛을 향해 위로 상승하고 대지를 초월해야 한다는 것이다. 잘 산다는 것은 삶에 도전하고, 마비되고, 드디어는 삶에 매몰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를 위해서는 삶으로부터 고립되고 삶과 대립되어야 한다. 삶으로부터의 떨어지고 삶에서의 추방은 화가에게 필수적이다. 웰빙이 미가 아니듯이, 미는 삶으로부터의 상승이고, 이 상승은 고통과 고립이다.

아무것도 없는 공중에서 꽃이 피듯이, 삶으로부터 버려진 곳에서 미의 꽃은 피어난다. 삶은 흐른다. 삶의 공간도 흐르고 삶의 시간도 흐른다. 흐름은 사라진다. 사라진 속에 안주할 때 삶의 꽃은 금방 시든다. 삶의 꽃이 피기 위해서는 흐름과 사라진 위로 상승해야 한다. 삶의 꽃은 시들지만, 삶의 외딴 곳에 피어난 미의 꽃은 영속한다. 미와 회화는 삶에서 피어나지만 삶을 넘어선 곳에 있다.

삶과 미, 삶과 회화의 이 어려운 관계를 미술평론은 설명을 해야 한다. 꽃을 피워내는 삶과 삶이 아닌 꽃을 같이 설명해야 한다. 미의 높은 산정(山頂)을 오르기도 하고 삶의 들판을 걷기도 해야 한다. 이편에 있는 삶과 저편에 있는 작품 사이에 다리



「미술의 실천, 상생의 미학」

김현돈(철학과) 교수 평론집

도 놓아 주어야 한다. 대지와 꽃, 삶과 예술, 감상자와 작품을 이해의 다리로 이어주어야 하는 과제를 평론가는 안고 있다. 그래서 평론 작업과 예술비평 작업은 험한 골짜기를 뛰어넘는 다리 놓기가 된다.

이번에 제주대학교 출판부에서 출판한 김현돈 교수의 미술평론집 『미술의 실천, 상생의 미학』은 그러한 어려운 과제를 겨냥하면서, 삶과 미의 문제를 해명하고자 하는 진정한 고뇌에서 나온 저서이다. 제1부 “미술과 삶의 회화”, 제2부 “역사와 예술의 만남”, 제3부 “삶, 인간, 예술”의 제목들이 말해 주듯이, 그리고 저자 스스로 “나의 미술 비평의 주된 관심사는 미술과 삶, 미술과 현실의 관계였다”라고 책의 서문에 밝히고 있듯이, 삶에서 피어난 온갖 꽃들, 푸른 꽃, 검은 꽃, 약의 꽃들을 바라보며 사유하는 저자의 섬세한 정신이 우리를 감동하게 한다.

대지의 꽃은 대지에 뿌리를 내린 사람만이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제주의 삶에서 자라난 제주의 미술 작품들을 누구보다도 깊이 느끼고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제주의 평론가이다. 미술 평론이 그렇게 활발하지 않은 제주에서 김현돈 교수의 미술평론 작업은 참으로 귀한 것이다. 바다와 바람, 흙과 눈물의 제주의 삶에서 피어난 아름다운 꽃을 바라보는 우리의 감성과 지성을 일깨우고, 그러한 정신을 바탕으로 한 삶 속에서의 새로운 실천과 상생의 이념을 끌어내려는 저자의 이번 저작은 미술평론을 넘어, 미학자로서의 저자의 면모를 엿보게 한다.

김종태 독일학과 교수

Welcome to English Camp!
생각만 해도 즐거운 영어캠프!

제주대학교 여름방학 초등영어캠프 참가자모집

제주대학교 초등영어캠프는 원어민과의 다양한 활동과 놀이를 통하여 영어에 대한 흥미를 유발시키고 자신감을 키워 영어실력을 한층 향상시킬 수 있는 유익한 프로그램으로 캠프참가자를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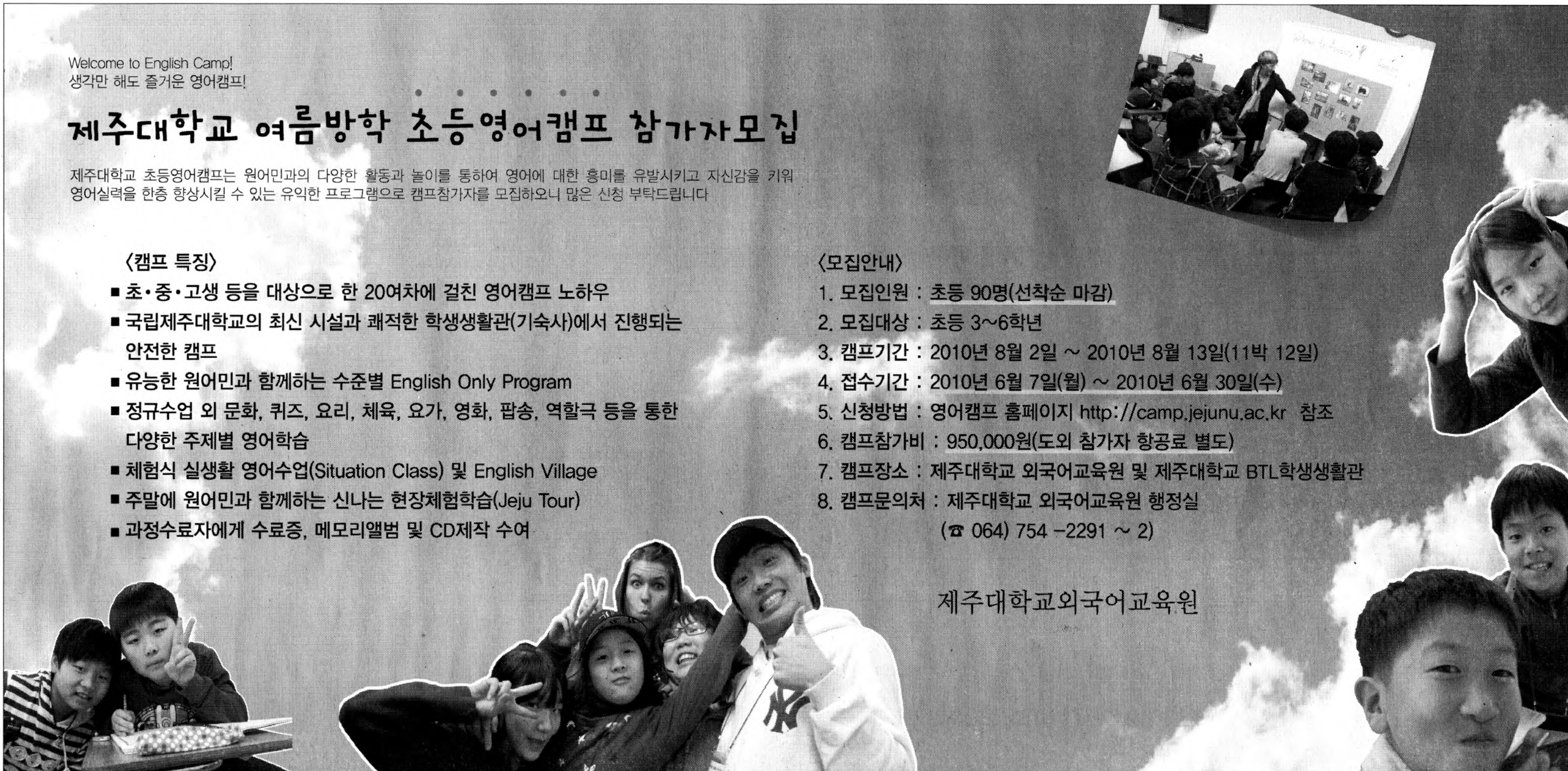
〈캠프 특징〉

- 초·중·고생 등을 대상으로 한 20여차에 걸친 영어캠프 노하우
- 국립제주대학교의 최신 시설과 쾌적한 학생생활관(기숙사)에서 진행되는 안전한 캠프
- 유능한 원어민과 함께하는 수준별 English Only Program
- 정규수업 외 문화, 퀴즈, 요리, 체육, 요가, 영화, 팝송, 역할극 등을 통한 다양한 주제별 영어학습
- 체험식 실생활 영어수업(Situation Class) 및 English Village
- 주말에 원어민과 함께하는 신나는 현장체험학습(Jeju Tour)
- 과점수료자에게 수료증, 메모리앨범 및 CD제작 수여

〈모집안내〉

1. 모집인원 : 초등 90명(선착순 마감)
2. 모집대상 : 초등 3~6학년
3. 캠프기간 : 2010년 8월 2일 ~ 2010년 8월 13일(11박 12일)
4. 접수기간 : 2010년 6월 7일(월) ~ 2010년 6월 30일(수)
5. 신청방법 : 영어캠프 홈페이지 <http://camp.jejunu.ac.kr> 참조
6. 캠프참가비 : 950,000원(도와 참가자 항공료 별도)
7. 캠프장소 : 제주대학교 외국어교육원 및 제주대학교 BTL 학생생활관
8. 캠프문의처 : 제주대학교 외국어교육원 행정실
(☎ 064) 754-2291 ~ 2)

제주대학교외국어교육원



▶ 짬막 인터뷰 - 여름방학 계획 이렇게

▶ 잼버리 자원봉사가 곧 방학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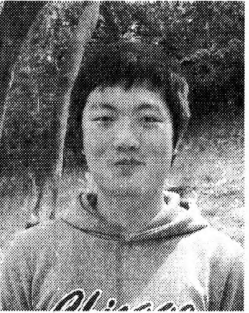


스카우트 활동으로 잼버리에 갈 것이다. 잼버리는 세계 각국의 사람들이 함께 야영을 가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캠프이다.

올해 잼버리에 참가하면 7년째다. 작년부터는 스테프로 참가하고 있다. 이번 방학은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다.

장유지 사회학과 1학년

▶ 아르바이트 통해 부모님께 효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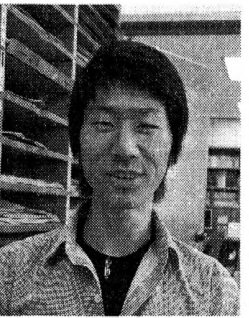


우선 운전면허를 따려고 생각한다. 그리고 많은 경험을 쌓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할 것이다. 아르바이트로 서울에 가서 유명한 명소를 돌아보고 맛집도 찾아갈 것이다.

또한 아르바이트를 한 돈으로 부모님께 드릴 선물을 사서, 그동안 전하지 못했던 감사함을 전하고 싶다.

한정우 토목공학과 1학년

▶ 호주 워킹홀리데이 철저히 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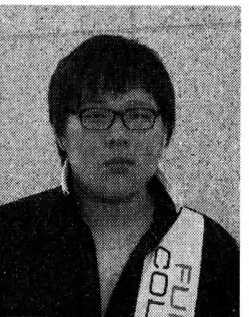


호주 워킹홀리데이를 준비하겠다. 이를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고 도서관에서 영어공부를 할 것이다.

여름방학이 끝나면 휴학을 낸 후 호주로 1년 동안 워킹 홀리데이를 갈 것이다. 호주에는 친척들이 살고 있다. 방학동안 열심히 준비해서 꼭 호주로 가고 싶다.

고덕훈 생명공학과 2학년

▶ 입대 전 의미있는 시간 보내고파



오는 8월에 입대할 예정이다. 두려운 마음도 있지만 아쉬운 마음이 더 크다.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생활 했는지 되 돌아보니 딱히 한 일 없이 시간만 흘러 보낸 것 같아 허무하다.

군대 가기 전에 남은 시간이라도 부모님과 친구들과 함께 의미있는 시간을 보내고 싶다.

배성준 사회학과 2학년

▶ 전세계인의 축제인 월드컵 만끽



이번 여름방학 중 가장 기대되는 것은 바로 '월드컵'이다. 전 세계인의 축제인데다가 내가 가장 좋아하는 박지성 선수의 마지막 월드컵 무대가 될 것이기 때문에 여느 때보다 더욱 열심히 응원할 것이다.

이번 월드컵을 통해 온 국민이 함께 뭉쳐서 환호할 수 있기를 바란다.

고지희 정치외교학과 1학년

▶ 제주대 취업도우미들을 만나다 - 신정수 취업교과목 강사

“학점 · 토익, 취업 절대기준 아니다... ‘꿈과 목표’ 명확해야”

“취업교과목을 가르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어떤 내용의 과목인가

“취업과 진로설계를 도와주는 강의를 하고 있다. 강의 내용은 기업 환경분석과 채용동향 이해, 자신의 스펙과 역량 분석을 통한 목표설정, 기업이 원하는 인재와 역량, 백인지식 3단 프레임을 활용한 자기소개서 및 이력서 작성법, 통하는 면접 토론면접, 시나리오별 취업전략 등이다. 이 중에서 시나리오별 취업전략은 개인이 보유한 학점과 토익점수 그 외 역량을 고려해서 눈높이에 맞춰서 회사와 부서를 결정한 후에 맞춤형으로 회사를 지원하는 전략이다.”

“수업에서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은 무엇인가.

“제주도란 특성이 있는 것 같다. 서울이나 대도시로 취업을 하려는 학생들이 많지 않고, 대부분 제주도 내에서 공무원이나 은행 정도에서 근무하길 원하는 것 같다. 어려운 부분은 학생들이 진로와 취업에 대해서 치열하게 고민해 보지 않은 것 같고, 꿈과 목표가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 부족한 부분은 학점과 토익점수를 얻는데 급

급해 있는데, 기업에서는 학점과 토익점수는 커트라인만 넘기면 되지 채용에 절대적이지 않다는 사실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다.

따라서 기업에 입사해서 필요한 부분을 습득하는 것이 좋다. 업무수행에 도움이 되는 스킬을 획득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된다. 이런 스킬은 학교 교과목에서는 접하기 어렵기 때문에 취업전략본부에서 방학이나 학기중 외부 교육기관을 이용하여 실시할 때 참여해 수료증 등을 취득하는 것이 좋다.

이번 여름방학에도 7월 5~10일까지 2차에 걸쳐 '1,000포인트 가산점 취득 및 INNOVATOR 인재육성 캠프'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런 캠프에 참석해서 수료증을 취득해 두면 좋다.”

“취업준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가.

“첫번째, 대학생활의 로드맵을 만드는 것이 좋다. 각 학년별로 학년에 맞는 취업준비를 해야 한다.

1학년의 경우에는 꿈과 목표를 우선 설정해야 한다. 자신의 꿈과 목표가 어떤 것인지 알아야 그에 맞춰 본격적인 취업준비를 할 수 있다. 그래서 1학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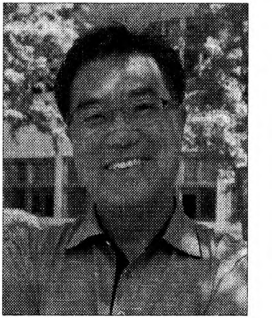
때는 직무적성검사나 진로탐색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꿈과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

2학년은 봉사활동과 동아리활동, 컴퓨터 자격증을 확보해야 한다. 2학년의 경우 전공수업을 들어가지만 3, 4학년의 내용부터 깊이가 부족해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편이다. 이때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증을 따야 한다. 또 토익, 토플 같은 영어점수도 확보해야 한다.

3학년 때는 전공 관련 업무에 필요한 자격증 취득과 기업 인턴, 공모전을 비롯해 비즈니스 회화나 제2, 3 외국어 등을 준비해야 한다. 또 전공 관련 자격증을 따야 한다.

4학년은 지원사의 산업 및 경쟁관계 분석과 지원사의 강등요인 분석 후 제안할 아이디어 연구, 채용 동향 파악 및 백인지식 3단 프레임을 활용한 자기소개서 작성과 면접 준비를 해야 한다. 4학년때 어가가 가벼워야 한다. 2, 3학년때 해야 할 것들을 4학년때 모두 해야한다면 이미 늦은 것이다.

두번째, 직장보다 직업을 한번쯤 생각해 봤을 좋겠다. 영원히 자신을 보장해주는 직장은 없다. 단순히 봉급을 받기



위해 회사를 선택한다면 위기가 찾아왔을때 대응할 방법이 없다. 직장은 여럿이 함께 일하지만 직업은 어쩌면 홀로서기 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따라서 직장 생활을 할때 돈을 받으면서, 홀로서기 위한 일을 배우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주인의식을 갖고 더 열심히 할 수 있다.

세번째, 주변에 인적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20대 나이로 세상의 문을 열기에 쉽지 않다. 학교 취업지원실이나 선배들, 교수님들을 적극 활용하고, 본인을 많이 알려두는 것도 좋은 전략이다. 인적네트워크가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취업할 확률이 높아진다.”

강보배 기자

▶ 김경순 취업전략본부 / 상담심리학 박사

“방학 맞아 적성 · 심리검사 기회로... 주변의 멘토 도움 필요”

“적성 · 심리검사가 왜 중요한가.

“요즘 학생들은 좋은 직업보다 자기 적성에 맞는 직업을 찾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러나 많은 학생들이 자신의 적성을 알지 못하고 그저 스펙 쌓기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잘못된 것이다. 자신에게 맞는 직업을 가져야 후회하지 않는 직장생활을 할 수 있다.

나 또한 원래는 단순한 행정공무원이었지만 제주대에서 받았던 적성검사로 인해 상담가의 길로 들어서게 됐다. 지금도 공무원으로 일할 때보다 상담가로서 학생들과 이야기 나눌 때가 더 행복하다.”

“취업전략본부에서 운영하는 적성 · 심리검사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취업전략본부에서는 개인의 심리적 특성이나 능력을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다양한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사의 종류로는 성격유형검사, 다면적 인성검사, 표준화 성격검사, 진로탐색검사,

적성검사 등이 있다. 이런 검사를 받기 위해서는 취업전략본부(<http://career.jeju.ac.kr>)에 접속해 커뮤니티에서 취업 · 진로 상담을 신청하면 된다.

또 학생들에게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성격유형검사, 적성검사, 다면적 인성검사 등은 매주 금요일마다 취업전략본부에서 선착순으로 진행한다.”

“이제 곧 방학이 시작된다. 방학을 알차게 보내기 위해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는 것이 좋을가.

“많은 학생들이 방학이면 늦잠을 자거나 종일 놀기만 하는 등 게을러지는 것 같다.

방학이라고 늘어지기 보다는 방학 중에 여행이나 봉사활동 계획을 짜 밖으로 나가서 다양한 경험을 쌓았으면 좋겠다. 특히 여행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참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자신이 직접 여행을 기획하고 진행하는 리더 역할을 하면 더욱더 큰 경험이 될 것이다. 또 봉사활동

같은 경우도 국내 봉사활동만 하지 말고 해외 봉사활동을 신청해서 영어공부도 하고 봉사활동도 하는 일석이조를 노렸으면 좋겠다.

그리고 방학에는 책을 많이 읽어야 한다. 책은 다양한 간접경험을 할 수 있는 통로이다. 직접적인 여행은 못가더라도 책을 통해서 간접 경험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정보화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이 지식이다. 학기 중에 시간이 부족해서 읽지 못했던 책들을 많이 읽었으면 좋겠다.”

“마지막으로 학생들에게 조언해주고 싶은 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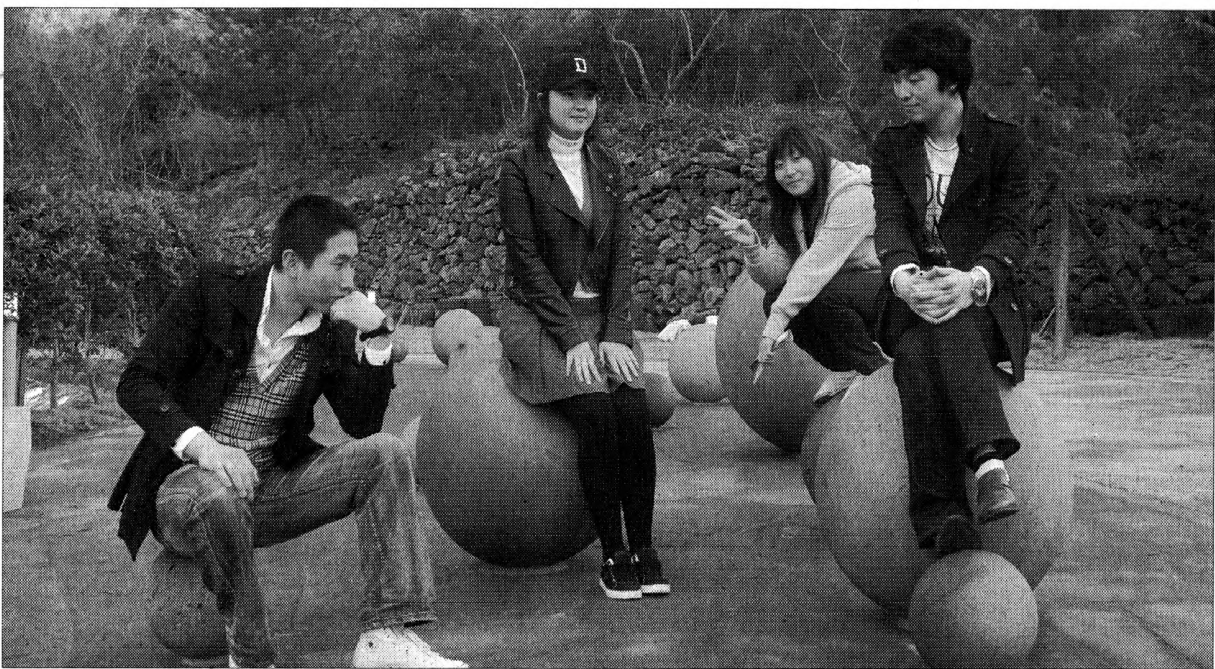
“자투리 시간을 잘 활용하라. 바쁜 생활을 하더라도 5~10분 정도에 자투리 시간이 조금씩 있을 것이다. 이런 시간에도 짧은 암기꺼리나 책을 들고 다니면서 읽으면 좋다. 노력한 만큼 결과가 나오는 법이다. 얼마 안 되는 시간이라도 다른 사람보다 노력한다면 성공에 한



발 더 먼저 다가갈 수 있다. 자신이 가까이 할 수 있는 멘토를 만나라. 학생들에게 멘토를 적어보라고 하면 많은 학생들이 만나기 어려운 사람이나 위인들을 많이 쓴다. 하지만 진정한 멘토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다. 우리학교에 있는 교수, 직원, 과선배들이 우리가 적어야 할 멘토인 것이다. 그래야만 가까워서 자신이 바르게 클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강보배 기자

▶ 포토 에세이



동수, 오리, 개선, 여자! 유리의 성에 가다! 처음 가 본 유리의 성에서 디카의 타이머 기능으로 사진을 찍었다. 동수는 생각하는 사람, 오리언니는 다소 귀하게 만산바라기, 나는 건달브이, 여자는 그윽한 남자버전. 훗날 시간이 많이 흐른 뒤에도 이 때의 순수함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김선이(생명공학과 4)

▶ 금주의 행사와 포토에세이를 모집합니다.

종합면에서는 독자들의 다양한 사진수기인 '포토에세이', 각 학과의 행사를 알리는 '금주의 행사' 컷을 실습니다. 독자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알림 행사 및 사진은 press@jejunu.ac.kr로 매주 금요일까지 보내 주십시오. 포토에세이에 사진이 게재될 경우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 금주의 행사

▲학과별 행사

△국어국문학과
행사명 : 학술조사와 중강파티
일정 : 6월 23일~25일
장소 : 성산 신포리

△정치외교학과
행사명 : 동문선후배 만남의 날
일정 : 6월 21일
장소 : 행정대학원 세미나실

△언론홍보학과
행사명 : 영상제 관련 정기총회
일정 : 6월 9일 오후 4시
장소 : 법정대 2123 강의실

△생물학과, 물리학과, 화학과
행사명 : 과학축전
일정 : 6월 11일~13일
장소 : 한라체육관

△전자공학과
행사명 : 동문회야유회
일정 : 6월 13일
장소 : 한라수목원

△예술학부
행사명 : 한국화 · 서양화 · 조소전
공 선후배 만남의 날

일정 : 6월 11일 오후 1시 30분
~오후 3시 30분
장소 : 미술관 110호 강의실

▲총여학생회

△담요 및 슬리퍼 대여
일시 : 6월 7일~21일(주말제외)
보증금 : 슬리퍼 3천원, 담요 천원 (반납시 돌려줌)

△간식제공
장소 : 총여학생회 사무실
일시 : 6월 15일~14일 오후 9시
(선착순으로 제공)

▲아라뮤즈홀 공연

△꽃별밴드-퓨전국악과 함께 즐거운 시간
주관 : 문화광장
일정 : 6월 9일 오후 2시
입장료 : 무료

△전제덕의 하모니카 스토리
주관 : 제주대학교
일정 : 6월 10일 오후 7시 30분
입장료 : 무료

△제주피아노학회 콩쿠르

주관 : 제주특별자치도 피아노학회

일정 : 6월 12일 오전 9시 30분
~오후 6시

▲교수학습지원센터

△교수매체 6월 포토샵
일정 : 6월 16일~17일 오후 1시~4시
장소 : 생명대 2호관 산업응용경제학과 PC실습실

▲해외봉사단 모집

△PAS청년해외봉사단 선발
모집일정 : 6월 14일~25일
파견국가 : 라오스, 베트남,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파견기간 : 2010학년도 동계방학 기간 중 3주~4주
신청 : 취업전략본부
(heejeung@jejunu.ac.kr)

△대학생 동북아 대장정
모집일정 : 6월 20일 까지
파견국가 : 몽골
파견기간 : 7월 31일~8월 11일
신청 : <http://dongbuka.kyob.co.kr>

무문유설

4대강과 제주 산성(山城)



허남준 국어국문학과 교수

지방선거가 여당의 참패로 끝났다. 오만과 독선이 심판받았다. 국민의 저항이고 당연한 결과다. 전쟁을 원하지도 않지만 패하기도 않겠다는 '전쟁불사론'이 결국 국민으로부터 비판받았다. 온 세상을 파헤쳐 죽음으로 만드는 살집 공화국의 4대강 사업에 대해 국민들이 염증을 느끼고, 그만 두라는 경고를 한 셈이다.

4대강 사업은 우리 국토·생태와 자연·생명을 위해서도 막아야 하지만, 이것이 계획대로 추진될 경우 토전카르텔은 수 조원을 축

적하고 카르텔 구조를 더욱 공고히 하여, 부정부패로 이 땅의 민주주의를 끝장 내고 경제 위기를 재촉할 것이라 본다. 선거에서 판가름났듯이 4대강 사업은 조속히 중지해야 한다. 이 땅의 복지와 교육이 4대강 사업으로 고갈되기 전에, 반드시 막아야 한다.

4대강 사업은 제주와 무관하다고 방관할 할 것인가. 제주는 강이 없어 이 환란을 피해가나 다행스럽다고 안심할 일이 아니다. 제주에서도 4대강 사업이 벌어지고 있다. 하천에 대규모 토건사업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제주도민은 편안하다. 5,000년 동안 없었던 대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놀랄 일이다. 그것이 바로 저류지 공사다.

KBS가 지난 해 말 이 '저류지'에 대해 일갈했다. "수백 억 원이 공중에 날아갔다"고 한숨을 쉬었다. 나리 태풍 피해를 겪은 후, 하천으로 흘러드는 엄청난 수량을 줄이기 위해 저류지가 필요하다고 서둘러 공사를 했지만, 모두 허사로 돌아가고 말았다는 결론이었

다. 왜 그런가? 이 저류지는 해발 100m 미만에 두어야 하는데 해발 200-300m에 설치되고 있기 때문에 무용지물이라는 보고였다. 지자체 담당자는 100m 미만의 지역은 땅값이 비싸기 때문에 어쩔수없이 중산간 위쪽에 저류지를 설치했다고 한다.

태풍에 큰 효용성이 없는데 왜 했는가? 그게 전신행정이다. 그리고 때마다 국가에서 토목공사를 하라고 엄청난 자금을 내려보냈으니 하늘이 내린 기회를 마다할 이유가 없지 않겠는가.

가 보았는가? 그 저류지를, 들기만 했던가. 병문천과 한천 중앙류로 한번 가 보시길. 엄청난 산성(山城)이 거기 새로 지어지고 있다. 왜구를 막으려던 환해장성은 애들 장난이다. 제주목을 둘러친 읍성은 장난감 블록 정도다. 명박산성은 위대하다. 제주에 있으니 이를 태환산성이라 해도 좋다. 중국 자금성이나 만리장성을 떠올릴 정도로 웅장하니, 우리 시대의 이 건축술에 대해 우리는 찬사를 보내야 할 일이다.

홍수 피해를 막기 위한 공사를 탓하고자 함이 아니다. 그 무자비한 공사로 제주의 아름다운 산하를 망치고, 얼마 후 북구비로 10배가 넘는 공사비를 쓰게 될 후일이 걱정된 때문이다. 토전카르텔이 더욱 완고한 힘을 비축하여 이 땅의 민주주의를 압살할 것이고 제주의 지방자치체를 위협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 토목건축비가 교육과 복지에 쓰였다면 어땠을까. 차라리 공사비 800억원을 대학 졸업자를 위해 썼다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연봉 2,000만원이면 4,000명을 취업시킬 것이고, 연봉 3,000만원이면 2,700여 명을 취업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젊은이들이 환하게 웃는 밝은 사회가 될 수 있을 텐데 말이다.

제주가 이토록 바뀌는 아픔을 외면하면 편히 살았을텐데, 그 산성을 보러가지 않았다면 조금은 편히 살 수 있었을텐데, 그랬다. 여러분도 제발, 그 산성을 보지 말길 바란다. 행복하기 위해서라면 눈감고 그냥 살기 바란다.

돌하르방

총학생회장, 학생대표로서 행동해야

지난 6.2 지방선거가 치러지는 동안 대학은 선거에 관한 논쟁으로 뜨거웠다. 대학구성원과 도민들의 다양한 의견들이 오르내리는 대학홈페이지 내 자유게시판에도 선거에 관한 글들이 다수 올라왔다. 일부 교수들은 도지사 후보를 지지한다는 기자회견을 했다. 그런 와중 이데적으로 총학생회장도 선거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통해 개진했다.

총학생회장은 지난달 28일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제주지역 대학총학생회장단의 이름으로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회견장에는 총학생회장을 비롯한 제주지역 3개의 대학 총학생회장도 동석했

다. 회장단의 논지는 대체적으로 후보의 부조리한 선거 행태와 그 후보를 지지하는 교수와 인물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졌다.

그런데 이런 총학생회장의 의견이 역으로 비판받고 있다. 교수들과 총학생회장의 의견개진은 분명 다른 의미를 가지기 때문이다. 교수들의 경우 학생 개개인과 같이 유권자 한 사람의 소견을 주장할 수 있지만, 총학생회장은 현재 맡고 있는 직과 관련해 학생 전체를 대표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총장이 대학을 대표한 의견을 발표할 수 있듯, 총학생회장의 의견은 제주대 전체 학생들의 의견으로 비춰질 수 있는 것이다.

여기서 문제는 총학생회장이 이런 민감한 문제를 발표함에 있어 학생들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총학생회장은 학생 대표들의 의견기구인 중앙운영위의 의견조차도 수렴하지 않았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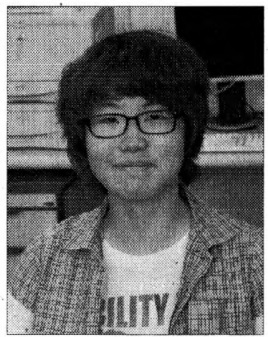
총학생회 회칙을 보면 총학생회의 목적에 '창조적이고 비판적인 진리의 탐구와 민주적인 자치활동'이라는 문구가 나온다. 또 '지역사회의 발전에 선도적으로 북돋아 준다'는 내용도 있다. 총학생회장이 비판을 받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학생들의 의견 수렴에서조차 민주적인 과정을 거치지 못한 점 때문이다. 또한 가짜나 판가르

기로 분분한 지역선거에 지역을 대표하는 대학의 총학생회장이 편승해야만 했는지도 의문이다. 이런 기자회견이 지역발전에도 선도적 역할을 위한 것이었는지도 더 심사숙고해야 했다.

총학생회장직은 개인으로 보여질 수 없다. 총학생회장의 이름으로 공식적인 발표를 할 때 최소한 대표단들의 의견은 수렴해야 한다. 또 게시판 등을 통해 공론화된 의견에도 소통을 마다하지 않아야 한다. 총학생회장은 임기동안 제주대 재학생 전체를 대표한다. 그렇기에 행동거지 하나하나가 제주사회의 이목을 끈다는 점도 간과해서 안된다. 박준경 편집장

독자기고

'월드컵 단독중계' 문제 많아



박현 철학과 1

다르게 전국에 전파를 전달할 망을 갖고 있지 못하다.

이는 결국 도서산간 등에서는 위성방송이나 케이블, IPTV 등을 통하지 않으면 월드컵을 시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번 SBS 독점중계가 진짜 문제가 되는 것은 공공장소에서의 월드컵 중계방송을 제한하는 전시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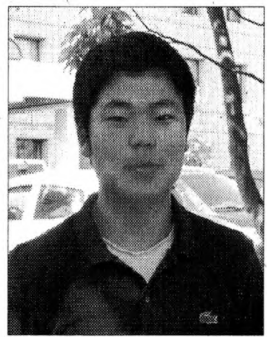
SBS는 FIFA와의 계약에 따라 중계권과 전시권 모두를 독점 중이다. 이에 따르면 공공장소에서 비상업적인 경우가 아니면 퍼블릭뷰잉권(Public Viewing Right)을 구입해야 한다는 것이 SBS의 입장이다.

즉 사람들이 단체로 경기를 보며 응원하는 대형 음식점, 영화관 등에서 월드컵 경기를 시청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민간기업이 주최하는 월드컵 응원행사에서도 월드컵을 중계하는 것조차 퍼블릭뷰잉권을 구매하지 않으면 불법이 되는 것이다.

2002년 월드컵이 우리에게 줬던 것은 4강 진출이라는 승부결과 뿐만 아니라 온 국민이 하나가 되어 대한민국 축구를 응원하고 함께 월드컵을 즐겼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그러나 SBS의 상업적 목적으로 인해 이번 월드컵이 국민들에게 감동을 전하지 못하게 된다면 SBS는 그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

독자기고

기대되는 나로호 2차 발사



조형준 한경공학부 1

지난해 2009년 8월 25일 전남 고흥에서 우리나라 우주선 나로호가 발사됐다. 그날은 친구들과의 약속도 모두 취소하고 집에 일찍 들어왔다. 그때쯤 부모님도 발사 시간인 오후 5시가 되기 전에 모두 약속한 것처럼 집에 들어오셨다. 오랜만에 우리가족은 텔레비전 앞에 모여서 초조하게 발사시간을 기다렸다.

오후 5시가 다가오자, 카운트다운이 시작됐다. 정각 5시, 나로호는 불꽃을 뿜어내면서 하늘 높이 솟아올랐다. 너무나도 기뻐서 나는 성공적인 발사모습을 보면서 환호했다. 그런데 기뻐한 것도 잠시 나로호는 발사시작으로부터 455초 뒤 목표지점에 도달하지 못하고 폭발했다. 너무나도 기뻐했던 순간이 순식간에 사라졌다. 나로호가 발사에 성공하면 우리나라 주도로 로켓을 발사해 떠온 인공위성이

탄생할 기회였기 때문이다. 만약에 발사에 성공했다면, 우리나라의 해외 인지도 및 선호도, 제품에 대한 인식, 수출 증가 등 전반적인 부문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을 것이고, 직·간접적으로 최대 약 3조원의 경제적 효과가 기대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는 다시 한번 우주 산업 선진국에 도약할 기회가 생겼다. 나로호 2호가 오는 6월 9일 1호가 발사됐던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발사되기로 확정되었기 때문이다. 나로호 2호는 1시간 30분에 걸쳐서 조립동을 출발하여 발사대에 도착하여, 발사를 위한 준비에 돌입한다. 그리고 나로우주센터 인근 봉래면에는 경찰이 일반인들의 출입을 철저히 통제하는 등 긴장감이 돌고 있다.

나로호 발사 취재진들이 취재경쟁을 시작했고 생방송을 위한 중계차도 속속 도착하고 있다고 한다. 한 번의 실패를 경험한 후라, 준비하는 모습이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한단계 한단계 차근차근 준비하는 모습이다.

이번 2차 발사는 꼭 성공해서 세계 10대 우주로켓 발사 성공 국가가 됐으면 한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국가 위상을 높이고 월드컵 시점을 맞은 이때 다시한번 국민에게 희망과 용기를 불어넣으면 좋겠다.

사설

선거는 끝났다. 다시 시작이다

"단일품종 위주의 재배형태는 갑작스런 환경 변화나 병, 해충 등에 취약함이 당하며... 단일품종 재배형태는 그 유전적 취약성으로 인해 대단히 위험한 재배방식이다. 즉 인위적으로 길러진 작물들은 유전적으로 동일한 형질을 갖는 것들로, 하나의 병이나 해충에 의하여 대규모로 공격당할 위험성이 있는 것이다."

위의 글은 자연을 존중하고 아끼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자연과학자들이 쓴 '신갈나무 투쟁기'에서 따온 것이다. 대량생산을 위해 단일품종 위주로 재배하는 것은 갑작스런 환경 변화나 병, 해충 등에 취약하기에 농약이나 화학비료 등에 의존하게 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다.

선거를 화두로 삼은 글을 이렇게 식물이야기로 시작하는 것은 단일품종 위주의 재배형태가 식물의 세계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선거가 끝난 이후의 정치판에서도, 아니 각종 선거를 치르는 민주화된 대사회에서도 발견되기 때문이다.

대의민주주의 사회에서 선거는 아주 중요하다. 보통, 평등, 직접, 비밀, 자유 등을 기본원칙으로 하며, 평등, 자유, 공정성 등의 원리를 지도이념으로 하는 선거의 기능은 크게 세 가지다. 정치권력에 대한 정통성 부여와 정치적 충원, 그리고 국민의 여론 표출 및 집약 등이 그것이다.

위에서 언급한 세 기능 중 앞의 두 가지는 선거가 끝나면 바로 그 기능이 발휘된다. 이는 선거가 끝나자마자 야당출신 단장 당선자들이 4대강 문제나 세종시 문제 등을 거론하기 시작했고, 일부 교육감 당선자들이 언론에 등장하기 시작한 것만 봐도 알 수가 있다. 그런데 마지막에 든 국민의 여론 표출 및 집약의 기능, 특히 여론 집약의 기능은 제대로 발휘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대의민주주의가 성공하려면 선거과정에서 후보자들의 공약사항 등을 통해 표출·집약된 유

권자들의 의견이 선거가 끝난 이후의 정책결정 과정에 제대로 반영되어야 한다. 그래야 많은 세금을 투자한 선거의 의의가 산다. 그런데 우리의 정치현실은 영 딴판이다. 중앙언론에 의하면 당선이 유력하던 후보가 낙선한 지역이나 특정 정당이 독식해오다가 이번에 단장장이 바뀐 지역에서는 대규모 인사 후유증을 우려하는 목소리와 주류세력의 교체에 대한 기대감이 교차하고 있는데, 이는 우리 정치판의 현주소를 여실히 보여준다. 극단적인 '줄서기'와 '내사람심기'가 바로 그것이다.

선거 운동 과정에서는 당선이라는 지상목표를 위해 일사분란한 조직이 필요하다. 그 과정에서 특히 호흡이 잘 맞았던 사람은 선거가 끝난 뒤에도 중책을 맡아 당선자를 도울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폭은 좁을수록 좋다. 그런데 '조만간 살생부가 나온다더라'와 같은 살벌한 문구가 중앙일간지에 버젓이 등장하는 우리 정치현실은 이와는 거리가 멀어도 너무 멀다.

선거는 끝났다. 그러나 다시 시작이다. 정책결정과 집행의 수월성을 위해서라도 선거과정에서 고락을 함께한 측근인사들의 중용은 불가피하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선거과정에서 낙선자들의 공약을 통해 집약된 바람직한 여론 또한 최대한 정책결정과정에 반영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당선자 본인이 측근인사를 뒤에 숨어있지만 말고 낙선자들과 그들의 측근인사들과의 원활한 소통에도 힘써야 한다.

보직을 맡은 측근인사들 역시 마찬가지다. 그래야 '정치적 단일품종 위주의 재배'의 덫에 걸리지 않고 정치적 다양성을 확보함으로써, 갑작스런 환경의 변화나 각종 사회문제들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가 있을 것이다. 또한 우리 유권자들은 우리의 정치가 '바르게 다스림'으로써 거듭날 수 있도록 눈을 크게 뜨고 지켜야 한다. 이렇게 우리는 모두 다시 출발점에 서 있다.

미디어 세상읽기

부정적 선거보도의 문제

지난 2일 치러진 6.2지방선거는 우근민 후보의 신승으로 마무리됐다. 이번 선거는 금품살포 의혹과 흑색선전, 상호비방 등 과열·혼란 양상으로 변질되면서 정책선거는 실종되고 그 어느 때보다 부정적(negative) 선거전으로 치달았다. 따라서 선거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유권자들의 참여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보장했는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평가가 많다. 이번 선거 투표율이 65.1%로 역대 제주 지방선거 중 가장 낮았다는 것이 도민들의 냉소와 무관심을 입증하고 있다.

각 후보 진영은 상대 후보자를 공격하는 메시지로 가득한 부정적 캠페인의 효과에 매달리는 구태를 버리지 못했다. 부정적 캠페인이란 후보가 자신의 입장과 강점에 대한 긍정적인 주장을 제시하기보다는 상대방의 문제점을 들추어 그 부정적인 측면을 강조해서 전달하는 캠페인을 말한다. 상대후보를 공격하는 부정적 메시지는 흔히 긍정적 메시지에 비해 더 주목을 받으며, 더 정확하게 기억되며, 더 오래 기억에 남기 마련이다. 유권자는 누가 부정적 메시지를 제시했는지 그 정보원에 대해서는 기억하지 못하지만, 그 부정적 메시지의 내용은 대인이나 매스커뮤니케이션에 의해 큰 영향력을 발휘한다. 즉 선거과정에서 분위기를 주도할 수 있고, 그 결과 선거 판세를 지배할 수 있게 된다.

이같은 부정적 선거전 양상에 어느정도 언론의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선거전이 과열되면서 부정적 캠페인이 등장하게 되면, 언론은 후보자끼리의 정치적 공격과 방어에 대해 보도한다. 정치적 공격과 방어를 보도하면서 언론은 알게 모르게 선거과정에서 큰 역할을 수행한다. 이는 후보자들의 행위와 주장을 보도함으로써 유권자에게 일정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우근민 후보의 진영에서 현명관 후보 동생의 금품살포 의혹과 구속에 대해 정치적 공세를 취하는 상황을 짚어 보자. 언론은 우 후보 진영의 공격적 주장을 보도함으로써 현 후보에 대한 지지율이 하락하는데 일조할 수 있다. 반대로 신구원 전 제주도지

사는 기자회견을 열고 우 후보 관련 '성희롱 등 4대 의혹 사건'을 폭로했다. 성희롱과 같은 민감한 사안은 후보의 지도자로서의 자질에 직접 관련이 되며, 이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는 것만으로도 우 후보의 지지율에 부정적인 효과를 미칠 수 있다.

이러한 부정적 캠페인이 추가 되는 선거에서 후보자가 대응할 수 있는 마땅한 방법은 거의 없다. 취할 수 있는 대책 정도는 비방의 내용을 부인하는 것, 무시하는 것, 또는 근거가 있든 없든 상대방에게도 비방을 퍼붓는 것 정도다. 일단 맞불을 놓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책이어서 곧 선거판 전체가 이전투구장이 될 수밖에 없다.

부정적 캠페인에 들어서면 모두가 흉물들을 뒤집어 쓸 각오를 해야 한다. 이같은 진흙탕 선거과정에서 지역언론은 부정적 캠페인을 그대로 옮기는 전달자의 역할을 하는 동시에 여과 없이 보도함으로써 공격과 방어, 비난과 부정이 만연하는 부정적 선거를 조장할 수 있다. 이런 식의 보도태도는 결과적으로 선거에 대한 유권자들의 관심과 참여를 가로막을 뿐 아니라, 선거과정의 본질적 의미를 왜곡하는 결과로 이어지기 마련이다. 유권자들은 후보자들에게는 물론 정치과정 자체에 대해 환멸을 느끼게 된다.

결국 유권자들의 정치 냉소와 혐오감을 증폭시켜서 투표 참여를 꺼리게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되기도 한다.

따라서 후보 비방의 진실성, 주장의 근거와 타당성에 대한 검증이 우선되어야 한다. 물론 어떤 주장이 근거 있는 주장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렇다면 후보 비방식의 기자회견은 지역언론이 공동으로 취재원칙을 세워 보도를 하지 않는 방법이 있다. 이를 통해서 부정적 캠페인 효과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 덧붙여 지지 세력을 과시하기 위한 특정 후보 지지자들의 기자회견은 원칙적으로 보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이는 유권자들이 중요시하는 정책 선거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데다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정용복 대기자

독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독자 여러분들이 직접 쓴 글을 오피니언면에 게재하고, 독자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학교에 바라는 점이나 제주대신문을 읽고 난 후 느낀점 등 다양한 주제의 글을 보내주시면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 이름, 학과 및 계좌번호를 꼭 기입해 주시길 바랍니다.

문의: 754-2279, press@jeju.ac.kr
홈페이지 http://www.news.jeju.ac.kr

농촌봉사활동 현장을 가다

“일하러 왔다가 철들어 갑니다”... 두고두고 기억될 농활

‘농촌봉사활동(이하 농활)’이 지난 4일부터 4일동안 총학생회와 총여학생회 주최로 표선면 세화1리에서 열렸다. 모두들 취업 준비로 바쁜 요즘, 책으로는 얻을 수 없는 값진 땀방울을 얻으러 세화1리로 떠난 이들을 만났다. (편집자주)

농활을 갔다. 아스팔트에서 아지랑이가 올라오고 입에서는 더운 김이 나왔다. 턱 밑으로 떨어지는 땀을 흘리며 찾아간 곳은 표선면 세화1리. 처음 가보는 곳이라 시외버스터미널에 전화를 걸고 인터넷으로 지도를 찾아 인쇄했다. 노력이 무색하게도 표선리에서 한참을 헤매다 결국 택시를 탔다. 그러나 내가 모르는 것은 길 뿐만이 아니었다. 나는 그들의 삶도, 땅도 모른다. 그곳에서 나는 어떤 땀을 흘리게 될까. 택시를 타고 구



지난 5일 표선면 세화1리에서 열린 농촌봉사활동에서 학생들이 농장주인과 함께 포대자루를 운반하고 있다.

불구불한 길을 지나며 마음이 술렁거렸다.

얼마 지나지 않아 한적한 농촌이 모습을 드러냈다. 이 마을에서 짓는 농사는 대부분 한라봉 등 하우스농사라고 한다. 겨울철에 특산물 열매를 수확하기 위해서는 무더운 여름부터 손이 바빠야 한다. 학생들은 이미 밭에 나가 일을 하고 있었다. 마을회관에는 식사준비위원회만 남아 점심을 준비했다. 마을회관에 앉아 있는데 한 남자가 흙 범벅이 된 옷을 입고 들어왔다. 바로 홍성민(사학 2)씨.

“아 힘들어. 나 하우스 하나 지었다!”
홍씨는 하우스를 짓기 위해 물을 옮겨서 비닐을 바닥에 고정시키고 지붕에서 비닐이 날아가지 않도록 고무줄로 단단히 묶는 일을 했다. 이런 일을 난생 처음해보며 그나마 공부에 편하다는 걸 깨달았다고 한다. 하우스를 짓고 있는 곳은 마을회관 근처였다. 문주리(가정관리 3) 총여학생회 부회장을 따라간 그곳에서는 학생들이 하우스 지붕에 올라가서 작업하고 있었다. 흔들거리는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자 발 밑에 있어야 할 땅이 한참이나 아래에 가라앉아 있었다. 아찔해서 숨을 들이켰다. 고개를 돌려 고무줄을 확실히 흔들며 능숙하게 비닐을 고정시키는 학생들이 보였다.

학생들 손으로 지은 하우스만 무려 6동. 베테랑처럼 일을 해주는 학생들 덕분에 세화1리 주민들의 얼굴에도 웃음꽃이 피었다. 김상현(48, 세화1리)씨는 학생들이 일을 도와줘서 더 할 나위 없이 좋다고 호탕하게 웃었다. “사람

을 구해서 일했으면 큰 돈이 나갔을 걸 덕분에 부담을 덜었어. 최고야!”

하우스 짓는 곳을 뒤로하고 나도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하기 위해 트랙에 올라탔다. 트랙 뒤편에는 학생들이 웅기종기 앉아 있었다. 학생들은 밭초모자를 쓰고 목에 수건을 두르고 있었다. 옛날 얼굴이지만 패션전 보면 벌써 농민이 다 됐다. 트랙을 운전하던 ‘삼촌’은 중간에 슈퍼에 들러서 막걸리를 샀다. ‘삼촌’은 다른 아님 정유선(43 세화1리)씨. 학생들은 마을 주민들을 ‘삼촌’이라고 친근하게 불렀다. 다시 트랙이 달리자 시원한 바람이 땀을 스쳐갔다. 오픈카가 따로 필요 없다.

그렇게 숨김을 달여서 찾아간 곳은 이제 막 종일단한 열매를 맺기 시작한 한라봉 농장이었다. 한눈에 봐도 커다란 농장을 부부 둘이서만 운영한다고 한다. 학생들이 안 왔더라면 부부 둘이서 적어도 한달은 일해야 했다. 일손을 구해서 일해도 되지만 그러면 인건비 때문에 본전도 찾기 힘들어 진다고 한다. 이곳 농민들에게 학생들은 반가운 지원군이다.

우리가 할 일은 비료 뿌리기와 열매숙기였다. 나는 여학생들과 함께 열매숙기를 했다. 나무에 비해 너무 많이 달린 열매를 미리 숙여내는 것이다. 종일단한 크기의 한라봉을 숙여내면 나무에 남겨진 한라봉들은 양분을 충분히 먹고 골단처럼 튼실하게 자라난다.

쉬은 일 같아보였지만 5분도 채 되지 않아 땀이 났다. 마치 물을 흠뻑 적신 걸레를 짜내는 것처럼 온몸에서 땀이 났다. 그러나 하우스는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열을 흡수했다. 나는 점점 안에서 요리되고 있는 만두가 된 심정이었다. 매일같이 하우스에 출근하는 농민들이 존경스러웠다. 벌겋게 익은 얼굴로 열매숙기를 마쳤다.

남학생들은 비료 뿌리기를 하고 있었다. 일을 돕기 위해 가까이 다가가지 못한 내가 올라갔다. 말로만 듣던 ‘똥비료’다. 돼지나 닭 같은 가축이 배설하는 똥오줌을 비료로 만든 것이다. 나무마다 포대에 담긴 비료를 쏟아놓고 나무 주위에 고르게 퍼지도록 손으로 일일이 퍼줘야 한다. 비료를 손으로 퍼기 위해 몸을 숙이자 더운 열기에 땀새가 아지랑이를

타고 올라왔다. 땀새는 콧속을 바늘처럼 찔러댔다. ‘삼촌’ 정유선씨는 땀새가 대수롭지 않은 것 같았다. 정씨가 여유롭게 웃으며 말했다.

“그래도 이 땀새가 서울 배기가스보다 낫지요. 몸에 해로운게 아니니까.”
그리고 보면 이 땀새나는 비료 덕분에 우리는 달달한 한라봉을 맛볼 수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여기까지 미치지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었다. 뚱뚱한 비료는 손으로 으스러트리거나 나무 주위에 고르게 퍼지도록 정성껏 비료를 퍼트렸다.

일을 마치고 삼촌이 막걸리를 권해주었다. 학생들과 삼촌은 동그렇게 둘러앉아 과자와 막걸리를 곁들였다. 안주가 변변치 못해서 괜찮겠느냐는 말에 박근형(메카트로닉스전공 대학원 석사과정)씨가 넉살 좋게 한마디 했다.

“아유, 땀 한 방울이 안주죠.”
박씨는 농활을 하며 농민들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알 수 있었다고 했다. 자식의 등록금을 내기 위해 365일 이렇게 고된 일을 한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찡하는 것을 느꼈다고 한다.

송글송글 이마에 맺힌 땀방울을 안주로 막걸리잔이 오갔다. 두런두런 세상사는 이야기도 나왔다. 박경호(토목공학 3)씨는 겨울방학 때마다 농촌에서 일을 한다고 했다.

“겨울철마다 매년 하는 일이지만 역시 힘들긴 힘들죠. ‘공부 열심히 해야겠구나’ 생각하게 돼요. 그래도 농촌에서 일을 할 때면 책 속에서는 배울 수 없는 것들을 얻게 됩니다.”

박경호씨의 말처럼 책에 얼굴을 파문고 공부만 할 때에는 ‘절대 알 수 없었다.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먹는 농산물이 이렇게 수많은 땀방울을 먹고 자라난 것이라곤... 이제 한라봉 하나도 너무 아깝고 감사해서 입을 대는 것조차 조심스럽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여전히 아스팔트에 아지랑이가 올라오고 입에서는 더운 김이 나왔다. 턱 밑으로는 땀이 한 방울 ‘주룩’ 흘렀다. 어쩐지 처음 농활을 하러 길을 나섰을 때와는 다른 땀방울을 흘린 것 같다.

고용희 기자

제30회 백록문학상 소설부문 심사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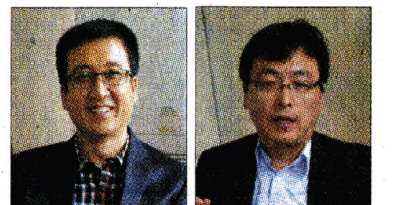
치열한 성찰과 고민의 흔적이 아쉽다
평범한 일상사 고루하게 풀어간 것 많아

소설은 궁극적으로 인간과 인생에 대한 탐구를 통해서 삶의 진실을 발견하는 작업이다. 때문에 작품을 준비하는 과정에는 인간과 인생에 대한 깊이 있는 성찰과 함께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절절한 고민이 선행되어야 하며, 치열하게 땀을 흘리며 써야 한다. 그런데 이번에 응모된 9편의 작품들에서는 그러한 성찰과 고민의 흔적을 찾기가 어려웠고, 땀 났다는 느낌이 들지 않았다.

응모작 대부분이 소설 습작의 초기 단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여러 형태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었다. 소설의 가치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참신하고 당당한 주제의 존재 유무는 차치하더라도, 이러저러한 문제점이 아주 많았다. 일상의 가벼운 기록과 다들 바라는 고무한 소재, 느슨하고 밋밋한 문장, 밀도가 떨어지는 스토리의 전개, 무의미한 대화의 남발, 분명하지 않거나 불필요하게 자주 바뀌는 시점, 인과관계가 성립되지 않

는 무리한 구성, 리얼리티의 치명적인 결함 등 작품마다 두루 허점을 드러내고 있었다. 유치한 아동물 수준이거나 소품에 불과한 작품들이 적지 않았고, 무성의하다고 판단되는 작품마저 있었다.

그래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당선작을 내지 않기로 했다. 격려의 차원에서 가장이라도 뽑아줄 만한 작품조차 찾을 수 없어서 안타깝기 그지없다. 응모작 모두의 분발을 촉구한다. 깊이 생각하며 진지하게 살자. 그런 삶 속에서라면 좋은 글이 나온다. 땀을 흘리지 않고서 어찌 튼실한 열매를 얻으려 하는가.



오을식
소설가

김동운
문화평론가

백록문학상, 오는 2학기 작품 재공모

제주대신문사는 오는 2학기 제30회 백록문학상을 재공모합니다. 청년문학의 활성화와 역량있는 작가 발굴하기 위해 백록문학상을 제정한 제주대신문사는 지난달에 제30회 백록문학상을 공모했으나 수상작이 없어 재공모기로 했습니다.

시, 소설 등 두 부문으로 나뉘어 모집하는 백록문학상은 학부 재학생만이 응모할 수 있습니다. 당선작에게는 총장상과 상금 부상이 주어집니다. 자세한 사항은 오는 9월 1일(837호) 발행되는 제주대신문 알림을 참고해 주십시오.

웹디자인·건축CAD·컴퓨터설계·광고편집·OA

■ 네오C&C는 취업이 잘 됩니다!

관련업체의 인력채용조건과 학원수료생과의 눈높이에 맞춘 매치-업(MATCH-UP)으로 학원 취업 연계 시스템을 활성화 시키고 있습니다.

■ 네오C&C는 자격증에 강합니다!

취업, 창업, 또는 진학에 필요한 관련 자격증을 1개 이상 취득하도록 권유, 지도하고 있으며, 실제로 많은 수강생들이 자격증을 취득하고 있습니다.
(컴퓨터그래픽스응용기능사/웹디자인기능사/전산응용건축제도기능사(CAD)/일러스트산업기사)

■ 네오C&C는 제대로 가르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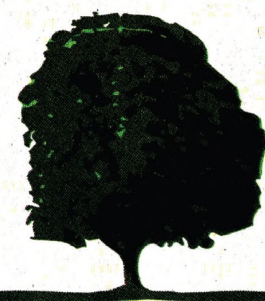
시간과 교육과정의 획일화된 고질적 교육체계에서 벗어나, 관련분야 실무경력과 자격증으로 무장된 전문 강사들로부터 실용적 교육을 합니다.

■ 국비지원취업교육 (100%지원, 본인부담 없음)

과정명	교육기간	교육내용
컴퓨터설계 (CAD&MAX)	2010.8.25~ 2011.2.24(6개월)	Auto CAD 2D&3D 3Ds MAX/렌더링
광고출판과 편집디자인	2010.8.27~ 2011.2.28(6개월)	일러스트레이터/포토샵 퀵&인디자인 편집
광고홍보 영상물제작	2010.9.10~ 2011.3.9(6개월)	일러스트레이터/포토샵 프리미어/애프터이펙트

■ 직장인 국비교육 [수강지원금, 사업주지원훈련, 능력개발카드과정]
고용보험을 납부하는 사업주와 근로자들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고용보험 환급 과정으로 매월 80%이상 출석시 수강료의 전액 또는 80%를 지원해 드리는 제도

NEO CREATION & COMMUNICATION ACADEMY
네오C&C디자인학원
문의 (대) 726-0076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은
현재를 소중히 생각합니다!

- ENGLISH : 기초문법/회화/토익스피킹
- 日本語 : 기초문법/회화/프리티킹/JPT대비
- 국비지원교육과정

관공비지니스 일본어 영어의료관광코디네이터

근로자수강지원금과정

- 전과정 100% 국비지원(본인 부담 없음)
- 월 수강료 80%~50%까지 지원
- 교육기간 : 2010.9.6~2011.3.11까지
1일 4시간 총 6개월 과정
-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로서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근무중인 자
(소규모 사업장, 중소기업체 근로자)
- 신청대상 : 2010.9.1 현재 실업자(무직자)
- 근로자 1인 수강료 연간 100만원
5년간 300만원까지 지원(한금)가능
- 출석률 80%이상시 매월 교통비 5만원 지급 혜택
- 단, 매월 출석률 80%이상 조건임

제일인국어통역학원
광양로터리 보성시장 맞은편 T.758-5440~1